반월 22
2008

제22회 반월문화제

백일장 · 사생 · 서예 · 사진 · 좋은책읽기 독후감 입상작품집

포천문화원

▣ '반월' 제22호 제자

서예가 志妍 金性姬

-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2회 입선
- 포천문화원 개관기념전 초대출품
- 아세아미술문화협회 추천작가

■ 표지설명 ■

제22회 반월문화제 대상 작품

포천초등학교 6학년 **전 희 재**

문예중흥선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 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조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을 때 나라는 흥한다. 신라통일의 위대한 업적과 세종시대의 문화창조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유산을 개발하고 민족적 전통성을 이어 받아 오늘의 새 문화를 창조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 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우리 예술을 확고한 전통속에 꽃피우고 우리 문화를 튼튼한 주체성에 뿌리박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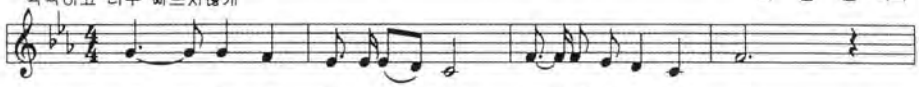
우리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영광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가치 의식과 사관을 바로 잡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의 자주성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문화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예술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세계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문화의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하여 인류문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예술가 모든 문화인들은 온 국민과 동참하는 대열에 서서 예술과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정성을 다해 문예중흥을 이룩할 것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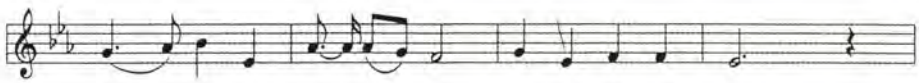
포천문화원의 노래

김 진 동 작사
박 장 순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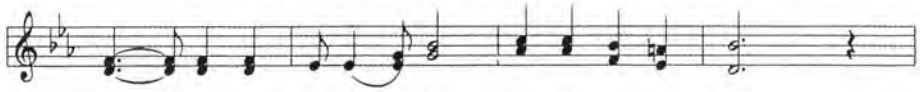
씩씩하고 너무 빠르지않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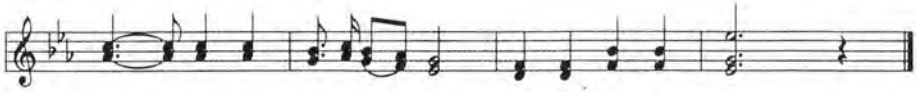
1. 왕 - 방 산 정 기받 - 아 한빛으로우 뚝 서
2. 한 - 내 천 구 비구 - 비 이 - 어 온역 사 를
3. 선 열들 의 맑 은정 - 신 이 슬 처 럼영 롱 한



꺼 져가 는 민 족혼 - 에 횃 불 을 당 겨
우 리품 에 안 - 고 - 서 갈 고 닦 으 면
여 - 기 는 우 리고 - 장 충 절 의 터 전



슬 기 모 아 땀 을 리 니 새 싹 이 돋 네
천 - 만 년 이 어 - 갈 열 매 맺 히 니
남 기 신 뜻 진 리 되 어 갈 길 밝 히 니



어 찌 아 니 가 꾸리 - 오 포 천 문 화 원
영 - 세 에 빛 나리 - 오 포 천 문 화 원
그 - 뒤 를 아 으리 - 오 포 천 문 화 원

내 고장의 상징

전체적으로는 산자수명한 자연을 주제로 하였으며, 통일조국의 중심지로 융성 발전하는 미래상과 환경친화적이며 전원적인 우리고장의 모습을 형상화하였음.
붉은 색의 태양은 진취적인 기상과 풍요한 미래를 향한 힘찬 전진을 의미한다.
녹색과 군청색은 푸른 산과 맑은 물을, 녹색에서 군청색으로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산과 물이 서로 어우러지는 쾌적한 포천의 모습을 나타낸다.
태극형상은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통일 조국의 중심지로 웅비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우리고장의 새 *원앙새*

천연기념물 제 327호인 원앙은 1급수에만 서식하고, 포천 광릉계곡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오리과 물새로 '늘 함께 있는 의좋은 부부'를 비유하며 조류 학자도 적극 추천하고 있는 새이다.

우리고장의 꽃 *포천구절초*

국화과에 속하는 포천 구절초는 포천에서 처음 발견돼 명명된 포천 고유의 식물 (학명 : Chrys – anthemum zawadskii Herb) 로 속명은 "포천가는잎구절초"며 한탄강 주변과 운악산 등지에서 볼 수 있지만 자생지가 제한돼 있고 개체수가 많지 않아 자생지 보호와 보존이 필요하다.

우리고장의 나무 *소나무*

십장생의 하나로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푸른 모습을 간직해 꿋꿋한 절개와 의지를 나타내는 소나무이며, 또한 군내면 직두리에 있는 수령 약 300년의 소나무로 문화재청으로부터 2005년 6월 13일 천연기념물 제460호로 지정되었다.

포천시민헌장

우리 포천시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터전과 충 · 효의 정신을 바탕으로, 뜻과 힘을 모아 보다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다음 사항을 힘써 지켜 나간다.

1. 깨끗한 마음과 근면 · 성실한 생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한다.
2.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명랑한 사회를 만든다.
3. 귀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을 힘써 가꾸어 향토문화 발전에 노력한다.
4. 자랑스런 포천시민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내고장을 사랑하고 빛내는 데에 노력한다.

우리 고장의 연혁

포천시(抱川市)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역사적으로 삼국 시대에는 번갈아 백제, 고구려, 신라의 세력권에 들어갔었으며 고려와 조선왕조 천년세월을 수도 서울의 울타리로써 중요한 역할을 맡아온 고장이다.

고구려 장수왕 63년(475)에 처음으로 마홀군(마홀馬忽郡)의 명칭과 명지(命旨)라는 별호를 쓰게 되었고 그 후 신라세력이 확장되던 진흥왕때(540~576) 견성군(堅城郡)이라 불렀다.

신라말 궁예가 철원에 도읍하고 국호를 태봉이라 칭하니 이 때에는 태봉 세력권에 들어갔고 이후 왕건이 고려를 세우니 우리 고장에는 궁예와 고려 태조 왕건에 얽힌 유적 및 일화가 많이 전해오고 있다.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 한후 태조23년(940)에 포주(抱州)로 부르다가 고려 6대 성종 14년(995) 십도제(十道制)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포천군(抱川郡)이라 부르게 되었다.

2003. 10. 19 도 · 농 복합시로 승격되었다.

2008 제22회 반원문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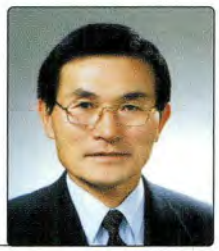
백일장 · 사생 · 서예 · 사진촬영대회 · 좋은책읽기 독후감 입상작품집

Contens

발간사	"반월"지 제 22호 발간에 즈음하여	6
축간사	포천 시민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는 길라잡이	8
축간사	포천 문화 예술을 성숙시키는 계기의 장	10
축간사	포천 문화의 얼굴	12
인사말씀	완성된 인격체로 지향하는 아름다운 삶들	14
백 일 장		17
사 생		73
서 예		115
사 진		141
좋은책읽기 독후감		155
심 사 평		181
입상자명단		191

발간사

"반월"지 제 22호 발간에 즈음하여



포천문화원장 **이 만 구**

지난 4월 27일 제 22회 반월문화제를 개최하고 입상한 우수 작품을 한데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내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모든 정성과 창의력을 발휘하시어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문화제를 매년 가정의 달인 5월에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4월로 앞당기게 되어 많이 염려를 하였습니다만 유치원 어린이로부터 각급 학교 학생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하시여 대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해를 거듭 할수록 규모나 내용면에서 성장 발전해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적극적인 관심을 갖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포천시장님, 시의회의장님,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하신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4월 27일 본 행사에 이어 연계행사인 '향토사 바르게 알기 경시대회', '전국휘호대회', '전국한시백일장' 등을 준비하여 나름대로는 뜻 깊고 의욕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본 행사에도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촬영 등 기 · 예능 경진 외에 좋은 글 써주기, 도자기 공예, 한지공예, 그리고 전통 투호놀이, 연 만들기, 제기차지 등 열한 가지의 문화체험 마당을 준비하여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체험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은 매우 뜻 깊은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이는 계속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기 · 예능 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을 많이 배출한 학교에 단체상을 시상하여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노고를 칭찬해 드리고자 종합우승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올해 좋은 성적을 거양하시여 종합 우승과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신 각 급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신 지도교사, 학생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주관하신 포천예술인동우회 이병찬 회장님과 각분과장님을 비롯하신 회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사를 맡아 수고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과 당일 진행을 맡아주신 진행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간사

포천 시민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는 길라잡이

포천시장 **서 장 원**

싱그러운 푸름의 계절에 문화의 성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반월문화제 입상작품을 모은 '반월' 22호가 발간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진정한 축하를 보냅니다.

스물두 번째 열린 반월문화제는, 예향의 고장 포천시의 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도와 작품의 수준이 높아지는 반월문화제의 위상은 우리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는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포천시민들이, 백일장과 서예, 사생 사진 등, 각 부문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문화의 장이되었으므로,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반월문화제 부대행사로 마련되었던 다양한 체험마당은, 시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 예술인들의 노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지면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포천문화원' 이만구 원장을 비롯하여 '포천예술인동우회' 이병찬 회장과 모든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수상작품을 엮어 발간한 '반월'지는, 해가 갈수록 작품의 질과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귀한 작품집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반월'지를 통해 생활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문화예술의 본질을 시민 모두가 이해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를 이끌고 나가는 일에 '포천문화원'이 앞장서서 '예향의 고장 포천'을 널리 알리고 확대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문화의 초석인 예술인들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성하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간사

포천문화예술을 성숙시키는 계기의 장

포천시의회 의장 **이 강 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싱그러운 신록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는 6월에 제22회 반월문화제에 입상한 작품들을 수록하여 발간되는 "반월 22" 발간을 16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포천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만구 문화원장님과 "반월 22"가 발간되기까지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22회 반월문화제에 입상되어 이번 작품집이 발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작가, 시민, 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포천시는 예로부터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을 뿐만 아니라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 또한 후덕하여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이러한 고장의 전통과 조상의 훌륭한 얼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향토문화 창달의 중심으로서 지역고유 문화의 계발 보급과 선양을 목표로 활동하는 포천문화원의 역할은 너무나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천의 얼과 혼이 담긴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포천문화원에서

스물 두번째로 개최했던 반월문화제는 우리 포천시의 위대한 문화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 포천의 자랑이요, 명예입니다.

이러한 유서깊은 행사에서 입상한 작품들을 수록하여 발간하는 "반월22"는 22년째 출간되어 온 우리 포천 문화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는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일장 · 사생 · 서예 · 사진촬영등의 분야에서 입상한 수준 높은 창작 작품들은 우리 포천의 문화예술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좋은 글 가훈 써주기 등 11개의 체험마당이라는 새롭고, 다양한 분야를 마련하여 일반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11개 체험마당에서 시민들은 우리 포천 문화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우리 포천 문화를 보존하는 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하여 지역 문화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가장 지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포천고유의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포천문화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역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축간사

포천 문화의 얼굴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 **오 정 순**

"반월 22"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포천 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반월문화제를 성황리에 마치고 그 우수작품들을 모아 이처럼 책자로 발간하시는 문화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반월문화제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행사를 주최하신 우리 포천문화원과, 대회에 참가하신 시민, 학생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문화의식과 애향심을 보았습니다. 단체나, 지역사회나, 국가를 막론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수준과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생활의 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시는 이 작품집이야말로 우리 포천 시민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어느 지역에서도 반월문화제만큼 규모를 갖추고 짜임새 있는 행사를 본 적이 없어, 이 지역 교육의 책임자로서 고마운 마음과 함께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가 수상작인 만큼 우리 포천 문화의 얼굴입니다. 따라서 수상자 여러분들 중에는 자랑스러운 마음과 함께 좀 더 잘 할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

을 느끼는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작품집을 거울삼아 그 아쉬움을 새로운 의욕으로 승화시킬 때, 작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 문화 전반의 수준도 그만큼 향상될 것입니다.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번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성황리에 마치신 포천 문화예술인 동우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인사말씀

"미래를 향한 돌아보는 자리"

예술인동우회장 **이 병 찬**

스물 두 해 만에 행사 당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 유치부에서 일반부까지 4,000여명이 포천 종합체육관에 모였습니다.

글 짓는 이는 나름대로 조용한 작은 나의 모퉁이가 필요했고 자리를 펼쳐놓고 쓰고 그려야 할 그림과 서예는 부득불 일정한 공간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무리 없는 작품 창출을 위한 진행자들의 역할은 사이사이 비집고 들어서는 관람자들과(아니 구경꾼들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을 향해 공손한 안내가 아닌 버럭 버럭 소리를 질러 대야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날씨를 대비한 장소의 준비와 인원 분산의 진행의 묘를 함께 대비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월 문화제란 이름으로 전국 한시백일장과 전국 휘호 대회등 전국 규모의 큰 행사와 작은 부대 행사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종합 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가지 전통문화 행사를 같은 범주에 넣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례, 계례)와 (전통혼례) (향사례, 활쏘기) (기로연)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과 산물 벌림 마당입니다.

지금은 행사당일 외래 잡상인이 주류와 안주를 팔고 있지만 우리 포천지역내에서 발굴하고 널리 알려야할 주류와 음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찾아보고 펼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 주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전국 적인 상표가 된 물품이 적지 않지만 더 많이 만들 자리의 시발점을 제공하며 또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의식주 생활 속에 건전한 禮와 藝, 樂과 樂이 자리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스물 두해 동안 유치부와 학생들의 경연장이라는 비하적인 말을 들어오며 우리 기성세대들의 올바른 자리 만들기 에 대하여 스물 두해를 돌아보며 작은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올 해 참여 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날에 큰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우리 포천 문화원과 포천 예술인 동우회는 더욱더 노력하고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2008 제22회 반월문화제

백일장 입상작품집

◉ 초등부 운문

장원	박가영	태봉초등학교	4학년
차상	이찬영	중리초등학교	5학년
차하	이민우	송우초등학교	4학년
차하	여혜지	왕방초등학교	6학년

◉ 초등부 산문

장원	윤진아	왕방초등학교	4학년
차상	윤가영	왕방초등학교	6학년
차상	최나현	관인초등학교	6학년
차하	남지유	왕방초등학교	6학년
차하	김정우	추산초등학교	1학년
차하	조수빈	일동초등학교	4학년

◉ 중등부 운문

장원	최나현	영중중학교	3학년
차상	양민지	동남중학교	2학년
차하	김도희	동남중학교	3학년
차하	정다솜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차하	심재겸	동남중학교	3학년

◉ 중등부 산문

장원	이윤주	내촌중학교	3학년
차상	박혜지	동남중학교	1학년
차하	이보혜	내촌중학교	2학년
차하	윤혜연	대경중학교	1학년

◉ 고등부 운문

장원	차재민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상	김용민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상	김나영	송우고등학교	1학년
차하	추효정	동남고등학교	1학년

◉ 고등부 산문

장원	김옥봉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상	김동희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하	김하나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하	이하림	동남고등학교	3학년

◉ 일반부 운문

장원	정현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차상	조미숙	양주시 덕정동
차하	임대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장려	백종만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입선	정명숙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 일반부 산문

장원	김영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차상	정혜진	포천시 내촌면 내리
차하	이태영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차하	김미현	포천시 신읍동
장려	유동계	포천시 군내면 명산리
장려	박진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입선	서선례	포천시 관인면 중1리

장원

봄이 좋아요

태봉초등학교 4학년
박 가 영

산들산들 봄바람이 아주 좋아요
봄바람이 꽃옆에 살며시 '호' 불면
꽃들이 좋다고 춤을 추니까.

주룩주룩 봄비가 아주 좋아요.
봄비가 오면 들판에 있는 새싹들이
얼굴을 내밀며 세수를 하니까.

알록달록 봄꽃들이 아주 좋아요.
여러 가지 색을 칠해 온 세상을
예쁘게 꾸며주니까.

반짝반짝 봄 햇살이 아주 좋아요.
따스한 햇살이 울상짓는 내 얼굴을
환하게 비쳐 웃게 하니까.

차상

친구

중리초등학교 5학년
이 찬 영

우리들은 스펀지
스펀지처럼
싸워도 원래대로
사이좋게 지내니까요.

우리들은 벽돌
우정의 벽돌을
차례차례
쌓고 있으니까요.

우리들은 친절한 이웃
모든 것을 나누는
이웃처럼 우리는
슬픔과 기쁨을 나누잖아요.

우리들은 선생님
서로 배려, 양보, 사랑을
보고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들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거예요.

차하

봄이 좋아요

송우초등학교 4학년
이 민 우

산의 봄은 분홍색
진달래들이 분홍색으로
자기 몸을 뽐내지.

산의 봄은 노란색
개나리들이 노란색으로
봄치장을 하지.

산의 봄은 하얀색
벚꽃들이 눈처럼
하얗게 휘날리지.

진달래, 개나리! 벚꽃들이
서로 예쁘다고 자랑하지.

차하

왕방초등학교 6학년
여 혜 지

봄이 좋아요

새싹들이 깨어나고
꽃들은 기지개를 피네요.
햇님도 하암 하품하고
봄바람이 환영하는
봄이 좋아요.

개나리꽃 노래하고
나비들은 춤을 추네요.
햇살도 휘-휘 박자젖고
꿀벌들이 박수치는
봄이 좋아요.

장원

아름다운 것

영중중학교 3학년
최 나 현

어느 날, 문득 창문을 열었다.

어느 날, 문득 창문을 열었다.

눈부신 금빛과 함께
선명하게 시야에 담기는
뚜렷한 색채.

분홍빛이 작은 꽃가지들
그 틈새로 얼굴 내민
노오란 새가 자아내는
부드러운 운율.

모든 것을 포용하는
넓은 하늘의 품에 담긴
고고한 뜬구름의 하얀 빛.

왜 나는 알지 못했던가.

진정 아름다운 것은
일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한결 같은 일상 속에서
새삼 느낀 아름다움에
감탄의 눈물이 차오른다.

그 날,
온종일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차상

봄비의 속삭임

동남중학교 2학년
양 민 지

어제 그는
목마른 나를 위해
분분히 벚꽃처럼 날렸다.

지금 그는
'할 수 있어.'
'기운 내렴.'
여린 내가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내일은
햇볕을 담은 따뜻한
나의 가슴으로
그를 안으면…
별이 된 나의 꿈이 자란다.

차하

아름다움의 근원

동남중학교 3학년
김 도 희

싱글거리는 햇살
갓 피어난 새싹들
꿈결 같은 꽃비
시작의 아름다움
지금은 봄

흘러넘치는 열기
물결속의 햇살
찌는 듯한 더위
역동의 아름다움
지금은 여름

티끌 없이 파란하늘
타오르는 산과 들
여유를 더하는 바람
풍요의 아름다움
지금은 가을

온통 하얀 시야
새로운 시작의 도약
차가움과 따뜻함의 공존
백색의 아름다움
지금은 겨울.

시작, 역동, 풍요와 백색
그 아름다움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사랑, 우정…
그것은 우리가 빛내는
인간의 아름다움.

차하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정 다 솜

어느 샌가 다가온 봄
거룩하고 거세게 몰아치는
추위를 이겨내고
자그마한 새싹을 피우는
들판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반겨주고 싶다.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는 진달래
달콤한 향기를
뽐내는 아카시아
순결함을 자랑하는 목련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나도 함께 뽐내고 싶다.

해는 부끄럼 타듯
구름 뒤로 얼굴을 감추고
바람은 살랑살랑 춤추며
실바람을 일으키고
산새들도 기분이 좋은 듯
콧노래를 부른다.
한 마리의 나비가 되어
봄 세상을 누려보고 싶다.

차하

친구

동남중학교 3학년
심 재 겸

마음속 깊은 곳에
풍만한 결실을 심어주고

혼자라는 외로움을
훔쳐 가버린 너.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에
웃음과 기쁨을 실어 주고

푸른 솔의 마음으로
나를 지켜보던 너.

거센 파도가 마음속에 몰아치고
거친 세상 속에서 날개 짓 할때

눈물이 없는 세상은 더 슬픈 거라고
소리 없는 미소로 나를 응원하던 너.

오늘도 나는 우정을 마신다.

장원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 재 민

춘애가(春愛歌)

청산은 초록물에 담그었고
나리는 노란웃음 번져가니
나는 봄이 좋아라.

잎을 구르는 이슬에도
내 가슴은 떨렸다.
어지러이 흩날리는 꽃내음에
내 코는 설레었다.

나는 봄바람을 품었고
내맘은 산 들 따라 푸르르니
나는 봄이 좋아라.

나의 봄이여.
너의 노래는
내 마음을 울렸다.

차상

동남고등학교 1학년
김 용 민

봄이 되어

추공같이 울고 있는
너의 그 숨결에
빛을 보내리.

하얀 속살 부끄러운
너의 그 가슴에
푸르름을 보내리.

외로웠던 겨울
스치는 바람되어
모두 가져가리.

아름다운
봄
이
되어….

차상

송우고등학교 1학년
김 나 영

봄소식

머리카락 흩날리며
시선 옮긴 나무위에
봄바람이 당도했다.
강남에서 오느라
가쁜 숨 고르며 여장을 푼다.

사계절 부대끼며
흰칠하게 자라난
개나리 울타리 위로
봄볕도 마실나왔다.

상봉한 회포에
꿈을 가득 실어
하루가 짧다.

차하

나였으면

동남고등학교 1학년
추 효 정

꽃 피는 봄
돋은 새싹만큼이나 푸르른
아이의 미소

봄의 향긋한 향기 속에서
향기로운 꿈 꾸는 아이

그 아이가 나였으면
그 향기로운 꿈 내가 꾸었으면

꽃 피는 봄
나비의 춤사위만큼 이나 고운
아이의 미소

어여쁜 꽃밭 속에서
어여쁜 꿈꾸는 아이

그 아이가 나였으면
그 아이가 어여쁜 꿈 내가 꾸었으며…

장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정 현 경

봄이 좋아요

잠자던 메마른 나뭇가지가
기지개를 켜요.
지나던 봄바람이 입맞췄거든요.
"누구야! 아이, 깜짝이야"
눈을 떠보니 위에선
따스한 햇님이 빙그레 웃고 있잖아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더니
땅속 발가락이 잔지러운거예요.

입춘 지난 땅속
생명의 꿈틀거림 시작되고
아우성소리
봄바람과 함께 실려 오더니
어느새
산수유 꽃망울 터뜨리고
진달래 꽃잎 펼치더니
온 산야가
울긋불긋 꽃동산 잔치.

봄비에
꽃잎 하나 둘 가더니
새싹 잎을 틔워
생명의 신비함 감출 수 없네.
온 산야가
초록으로 물들었네.

봄바람
봄비와 함께
생명의 희망 실고 오네.

꽃이 피어 좋은 봄이 아니어요.
잎이 돋아 좋은 봄이 아니예요.
그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희망을 주는 봄이기에
봄을 아니 좋아 할 수 없어요.

봄이 좋아요
봄이 좋아요
자연의 위대한
봄이 좋아요
헤설픈 내 삶이 서러워
봄이 좋아요
그나마
희망을 심을 수 있기에
봄이 좋아요.

차상

봄 풍경

양주시 덕정동
조 미 숙

봄바람의 바다속을
나뭇잎들이 헤어친다.

반짝이는 햇살의 바다를
나뭇잎들이 춤을 춘다.

진달래 개나리도 한껏 빛을 발하며
봄의 바다를 춤춘다.

땅 속에서
땅 위에서
봄의 가슴 속에서
희망을 헤엄친다.

차하

봄, 그 즈음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임 대 기

동녘 저편
어스름 빛
솟아 오를 때
양지 쪽 산기슭
꼬부랑 고사리 허리 펴고,

따스한 햇살
가느다란 바람결에 실려
하늘에서 쏟아질 때
대지의 생명은
얼굴 내밀고,

서녘 하늘
성근 별 하나 둘
반짝거릴 때
부끄러운 할미꽃
고개 숙이네.

장려

백늘푸른

포천시 신북면
백 종 만

벚꽃피는 날
진달래 철쭉피는 때
눈물나게 고운 아기가
나에게 왔습니다.

하! 참! 화! 호!
너무 예쁜 아가

목련피는 날
쑥 냉이 솟아나는 철
가슴벅찬 살가운 애기가
나에게 왔습니다.

아! 히! 와! 히!
너무 고운 아가

이 들 저 들 온 들에
이름모를 봄꽃들 나올 때
이생은 너무 아름다웠고
열심히 살아야 겠노라고…

봄바다 일렁이는 이 맘
꿈 희망 사랑 자비를
일러준 나의 아들

입선

아름다운 것

포천시 이동면
정 명 숙

어스름 저녁 무렵의
산수골 찔레꽃
오월 달빛아래
꽃으로 피어나는
낙엽송 새 순
화사한 온갖 봄꽃들
이뻐다
눈이 부시다

그래도
어느날 문득 전화 해
야이 너 같은 사람
그렇게 쓰기엔 자다 생각해도
아까워 국가적 손실이야
큰 손실
하며 전화기 너머로 날려주는
친구의 허술한 웃음이
더 이쁘고

사나흘 아랫목에 굴려
노릇 소들해진
팥밤 까 주시던
우리 할매
더 더욱 이뻐시고

찡긋 거리는 눈이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어수룩한
어수룩한 우리 엄마 미소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꽃보다
어여쁜
따스한 아름다움이다.

장원

내 친구 코야

왕방초등학교 4학년
윤 진 아

내 친구는 특별하다. 사람이 아닌 개. 개 이름은 코야였다.

원래 아빠께서 언니한테 아토피가 있다고 키울 수 없다고 하셨지만 언니와 내가 졸라서 애완동물 분양 홈페이지에서 분양되었다.

'코야'는 '치와와' 종류였다. 커다랗고 초롱거리는 눈은 참 귀여웠고, 짤막하면도 부드러운 갈색털은 사랑스러움을 한번에 받아갔다.

처음은 낯설음에 꼬리를 쏙 감추고 자기 집에 코를 처박고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약 1시간 정도 후 같이 장난치고, 핥기도 하고, 안기기도 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화장실에서 볼일을 잘 가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목줄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 나는 가끔 몰래 코야의 목줄을 풀어주기도 했다.

코야는 나에게 가장 매우 가까운 친구였다.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옆에 두면 비벼 대기도 하고 핥아 줘서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

코야가 있을 때, 일주일에 1번 정도 씩 산책을 갔었다. 그래서 그때 마다 코야를 데리고 갔었는데 늘 먼저 후다닥 뛰어갔다가 뒤에서 가족들이 천천히 오고 있으면, 뒤돌아 서서 기다릴 때도 있었고, 다시 우리한테 마구 뛰어오기도 했다. 아마 늘 묶여있다가 풀리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날뛰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신나게 뛰다가 힘들면 가족중 한명한테 찰싹 붙어선 눈빛 공격을 하면서 안아 달라고 표시를 한다.

그래도 안아주지 않으면 다리를 긁어대면서 낑낑 거렸다.

안아주면 좋아서 입이 찢어져라 활짝 웃었다. 어쩔 때 안아주면 얼굴을 핥아 주기도

했다. 그때 그 느낌은 무척 좋다.

그리고 집에선 공을 던져 주고 받기하고, 손가락을 물면서 장난을 쳤다.

그 때면 내가 노는 것처럼 재미있고 신이 났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키우지 말라고 해서 결국 아홉달 동안만 키우고 바로 분양 되었다.

별로 잘해주지도 못 했는데 보낸 게 정말 미안하고 슬퍼서 가끔 울기도 한다.

딱 한번만 이라도 다시 봤으면 싶다.

"코야야, 잘 지내니? 정말로 보고 싶어. 나의 특별한 친구야……"

지금은 눈물로 물든 친구 코야다.

차상

왕방초등학교 6학년
윤 가 영

나의 동물 친구들

나는 여태까지 지내면서 내가 좋아했던 곤충이나 동물들에 대해 쓰려한다.

내가 5살 때쯤에는 춘천에서 살았었다. 그 곳, 유치원 풀밭는 작고 귀여운 친구들이 있었다. 소똥벌레와 불개미들. 우습게 생각할수 있지만, 난 정말 그 녀석들이 장난치며 노는 걸 보면서 같이 놀았다. 가끔은 간식도 주었다.

그 다음, 3학년 때는 부산으로 갔는데 거기선 개를 키웠다. 치와와 중의 스무즈 종이었는데 갈색에 눈이 아~주 크고 초롱초롱했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 회관 뒤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들은 무당벌레들의 주거단지였다. 거기사는 무당벌레 중 나를 잘 따르는 벌레도 있었다. 노란색에 갈색무늬가 있었는데 내가 나무를 마구 흔들면 날아와서 나한테 앉았었다. 그 다음해부터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리고 5학년 때 포천으로 이사왔다. 부산에서 키우던 개는 분양시킨지 오래됐고 겨울이라 곤충도 찾기 힘들었다.

게다가 학교 때문에 실컷 찾을 수 있는 개미도 찾지 않으며 지냈다. 그러다가 2007년 11월 1일! 7층에 살던 친구가 키우던 개를 주었다. 종류는 치와와와 요크셔테리어가 섞인 믹스견. 즉 똥개. 흰색에 황갈색의 무늬가 큰 점처럼 몇 개가 있었다. 언제 털을 한 번 짧게 깎았더니 꼭 '치와와' 같았다.

가끔 전선을 물어 뜯기도 하고 방안에 볼일을 보기도 하고 이불을 잘근잘근 씹어 놓아서 무지하게 혼나기도 했지만 집에서 사랑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나 예쁜짓을 많이 하는지 개를 싫어하는 아빠도 축복이를 좋아 하셨다.

앞으로는 또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될지 모른다.

아직도 그 쇠똥벌레와 불개미들이 장난치는 모습이 그립다.

그 희한하게 생긴 노랑무당벌레도 보고싶다.

부산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도 새 친구 축복이와 앞으로 또 신나고 재밌게 지낼 생각을 하면 즐겁고 행복하다. 새 친구 똥개 축복아, 앞으로 더 신나게 지내보자~!

차상

아빠 보세요

관인초등학교 6학년
최나현

아빠! 저 나현이예요.

아빠, 예쁜 꽃들과 푸른 녹음이 반짝이는 봄이 되었어요.

강가에 터를 잡은 우리 집에도 봄의 천사가 찾아와 그림처럼 변했어요.

아빠, 많이 애쓰셨지요. 저와 가족을 위해 이 집을 지으셨잖아요. 저를 위해 특별히 이층다락방을 꾸며주어 친구들에게도 자랑이 되었답니다. 지붕이 뾰족하고 작은 창문이 있는 다락방에서 아빠의 사랑을 느끼며 제 꿈이 자라나고 있어요.

파릇파릇 봄날, 아빠의 하루는 바쁘고 지친 모습입니다. 흙 묻은 바지와 풀 물든 셔츠로 일하시는 아빠의 땅도 흙빛에서 초록빛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힘겨운 허리를 펴고 너른 벌판을 지키시는 아빠의 모습이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 반듯한 신사가 아니더라도, 많은 돈을 버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흙속에 땀을 묻으시고 농촌의 밑거름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아빠…

건강에 해로운 담배 줄이시구요. 아직은 아빠의 땀을 보고만 있는 딸이지만 바르게 자라 아빠의 손수건이 되어드리고 아빠의 모습을 닮은 바른 딸이 되겠습니다.

어떤 힘든일이 있어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멋진 아빠로 남아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차하

내 이름 석자

왕방초등학교 6학년
남 지 유

내 이름 '남지유'라는 세 글자에는 부모임의 방울방울 구슬땀이 들어있고, 가득 찬 정성이 녹아 있으며, 빛나는 노력이 묻어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세상으로 "응애!"하며 나올 날 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시기 위해 옥편을 몇 번이고 계속 뒤지셨고, 밤을 세워 가면서까지 나에게 가장 어울리고 특별한 이름을 찾고, 찾고, 또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의 이름을 지으시기 위해 고생을 하시면서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시거나 맡기시지 않고, 꼭 직접 지어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나의 이름을 탄생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철이 없어서 그런지 내 이름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같은 반 남자애들로부터 이름으로 인해 늘 놀림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앞에서 써있듯이 내 이름은 '남지유'인데, 아주 많은 별명을 붙일 수 있어서 놀림감이 되기 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었던 별명 중 몇 개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남대문, 남산, 남산타워, 남색, 남자, 남자유, 남쪽 등입니다.

그래서 난 작년까지만 해도 내 이름이 너무너무 싫어서 아빠께 계속 이름을 바꿔 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조르곤 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 해 보면 살짝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름을 얼마나 힘들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이 이름에 행복해 하길, 만족해 하길 소망하며 지으셨다는 것을…

또, 자신이 밤을 세워가면서까지 지은 딸의 이름을 딸이 바꿔달라고 때를 쓰니 그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 친구 중 한명은 자신의 이름을 아빠께서 절에 맡기셔서 스님이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내 이름은 우리 아빠께서 직접 지어주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야~, 그리고 내 이름은 인터넷에 쳐봐도 동명이인이 하나도 없는 특별한 이름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차하

친구

추산초등학교 1학년
김 정 우

나에게는 형이 한 명 있다. 형아가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다.

내일이 바로 학교에 가는 날이었다.

초등학생이 되어서 기분이 좋았다. 이제는 유치원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날씨가 조금은 추웠지만 축구를 하고 싶어 갔다. 형아들이랑 축구를 하다 공을 빼앗겼다. 형아들이 공을 세게 찼다. 난 손을 맞았다. 엄청 아팠다.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팔이 부러졌다고 해서 엄마와 나는 깜짝 놀았다. 그래서 '깁스'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동안 해야 한다고 하니 불편할 것 같았다. 그래서 친구를 못 사귈 것 같아 걱정을 했다. 첫째 날 학교에 가서 친구 할 만한 애를 찾아봤다. 그런데 없었다. 다음 날 친구 할 애를 찾았다. 그 이름은 이동우였다. 동우가 다른 친구 게임기로 게임을 했다. 나도 게임을 좋아해서 시켜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시켜줬다. 한 판씩 돌아가면서 했다. 셋째 날에는 칠판이 달린 내 필통에 동우 전화번호를 썼다. 집에 가서 전화를 했다. 넷째 날 동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알았다. 학교 끝나고 놀기로 했다.

팔이 다쳐서 친구가 없는 왕따가 될 거라고 형이 놀렸는데 지금은 팔도 다 나아서 친구들과 놀 수 있게 되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는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

차하

친구 - 소중한 친구

일동초등학교 4학년
조 수 빈

나에게 '친구'라는 존재는 깔깔거리고 웃는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존재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공유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친구만이 느껴줄 수 있을 때가 있다.

차마 부모님께 고민을 꺼내지 못할 때에는 속으로 끙끙거리며 속상해 한다. 그러다가 친구에게 무심코 툭 한마디 던져보면 예상치도 않게 '나도 그래'라는 대답과 함께 긴 수다를 떨게 된다. 그러다보면 어느새 속이 뻥 뚫리고 기분이 시원해진다. 박하사탕을 입에 물었을 때처럼 말이다.

지난 2년간 나는 2명의 친구와 이별을 해야만 했다. 피아노 학원을 같이 다이면서 친해진 내 친구 '염지은'. 학원을 끝마치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같이 시간을 보냈다. 가끔은 숙제를 한답시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우리는 깔깔거리고 헤헤거리느라고 1시간이 1분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갑자기 지은이가 이사를 간다고 하였다. 나는 친구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어 슬펐다.

새 학년이 되던 첫 날, 유난히도 내게 말을 걸던 '이서영'이라는 친구를 만났다. 우리는 금새 단짝친구가 되기로 약속을 하고 계약서도 작성했다. 우리는 서로의 집에서 파자마파티를 열었다. 파티라고는 하지만 말처럼 거창하지 않은 우리의 소박한 모임이었다. 처음이었다. 거의 밤을 세웠으니까…

새벽 3시까지 수다를 떨었다. 그리고 6시에 일어나 또 수다를 떨었다. 나는 서영이의 비밀을, 마음에 아주 많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세상도 서영이에게 보여주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 때로는 질투심에 잠깐씩 멀어질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닮은점이 많아 쉽게 화해를 했다. 서영이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다. 나는 슬펐다. 친구를 또 잃었으니까…

나는 친구에게 바라는게 아주 많았다.

나에게 친절하면 좋겠고,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고, 투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물건을 잘 빌려주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건 내 욕심이다.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야겠다. 다른 친구들도 그런 친구를 원할테니까…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도 친구들과 밤을 세고, 깔깔거리고, 헤헤거리며 수다를 떨고 싶다.

장원

내촌중학교 3학년
이 윤 주

아름다운 사람들

중학생이 되어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봉사활동을 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어머니께서 "윤주야! 엄마가 일하는 마트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가지 않겠니"하며 권유를 하셨다. 그리하여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2006년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 되면 내촌면 마명리에 위치한 '운보원'으로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다니게 되었다. '운보원'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청각장애인 화가이신 '운보 김기백' 화백님이 설립한 단체이다. '운보원'에는 청각 장애인이 여러 명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고 청각 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청음공방이라는 가구공장을 운영하기도 한다.

처음 '운보원'에 엄마를 따라 들어섰을 때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아저씨들이 모여 우리를 반갑다고 반갑게 맞아 주셨다. 하지만 말이 아닌 '어- 어- 아- 악-' 하는 괴성과도 같은 소리를 내며 막 달려 나오셔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엄마 등 뒤에 숨기에 바빴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운보원'에 다니면서 서로의 모습에 길들여지자 그런 모습들 속에 정이 뚝뚝 묻어났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따뜻한 눈빛 속에서 서로에게 사랑이 오간 것 같다.

오빠 같고 아빠 같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다정한 아저씨들과 어울리다 보니 이제는 봉사활동을 가는 날이면 문 앞까지 나와서 반갑다고 달려오며 소리치시는 호선이 아저씨의 모습이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날 만큼 정겹기만 하다.

'운보원'에서 체육대회가 있는 날에는 엄마와 함께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포천에 있는 경복대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언니, 오빠들과 '운보원' 식구들이 어울려 공을 찬 적이 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뿐 공을 차며 땀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가 되

어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인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친근함이 묻어나는 하루였다.

처음 '운보원'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에는 모든 것이 두렵고 낯설었지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내 키가 자라난 만큼 '운보원' 사람들과 정도 쌓여갔다.

내가 '운보원'으로 봉사활동을 오기 전에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 박정연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정연이는 언어 장애와 행동 장애를 가진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덕래 선생님은 정연이가 가끔씩 수업 시간에 바지에 똥을 싸면 친구들에게 씻어 주라고 시키시고 선생님께서 손수 똥을 치우기도 하셨다. 그 때 나도 정연이의 몸을 화장실에서 물로 씻어 준 적이 있었는데 구역질이 나서 밥을 못 먹고 정연이를 멀리 한 적이 있었다.

'운보원'으로 봉사 활동을 다니다 보니 그때의 내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고, 정연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장애인을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 혹시 마주치면 피하기 일쑤였고, 행여 내게 다가올까 멀리 떨어져 걸었던 내 모습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낀다.

장애인을 만나면 먼저 달려가 안아주고 보듬어 주고 도와주는 사랑을 베풀기에 아직 나의 모습은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운보원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장애인에 대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이젠 한두 마디쯤은 수화를 통하여 나눌 수 있는 나를 발견하며 내 작은 힘이나마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내게 시간이 허락되는 한 '운보원'의 봉사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 고등학교, 대학교 아니 어른이 되어서도 나의 아이들과 함께 '운보원'을 찾아 계속 이 소중한 아름다운 인연들을 이어나가고 싶다.

차상

봄과 나

동남중학교 1학년
박 혜 지

일요일 아침 8시30분쯤 되면 태봉산에 가서 운동을 하자고 엄마는 온 식구들을 깨우신다. 아침밥을 먹고 운동복에 운동화를 신은 아빠, 엄마, 나, 배드민턴 라켓을 든 동생 이렇게 네 식구는 집에서 걸어 5분정도 걸리는 태봉공원으로 향한다.

아파트 후문을 지나 상수리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구불구불한 좁은 오솔길을 지나면 소나무가 울창하게 가득한 길을 걷게 된다. 바람결에 콧속으로 들어오는 소나무향을 맡으며 걷다보면 약수터가 나오고 약수터를 지나면 예쁜 정자가 나온다. 이곳이 태봉공원이다. 올해 3월 중학생이 되면서 우리 가족은 엄마의 강압에 못 이겨 한 가지 약속을 하였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 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운동부족도 되고 가족 간의 대화도 짧아진다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요일마다 태봉산에서 운동을 하자고 말이다. 태봉산은 겨우 6주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3월에 올 때만 해도 마른 나무들만이 휑 하니 있었다. 그런데 태봉산은 한 주 올 때 마다 다른 색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마른 나뭇가지에 푸른 새싹이 돋고 그 다음 주엔 노란 개나리가 수줍은 듯 피어 있었다. 노란 개나리꽃에 초록 잎이 피었을 때는 하얀색 벚꽃이 활짝 피어 바람에 날렸고 그 다음 주는 싸리꽃과 산수유 꽃이…. 저번 주에 갔을 때는 진한 꽃분홍색의 철쭉이 갓 피어나는 아기처럼 꽃 봉우리를 맺고 있었다. 이렇게 꽃구경도 하고 시원한 산 공기 바람도 마시며 엄마 아빠께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선생님 이야기 또는 속상한 일들을 이야기하다보면 금세 산 중턱을 세 바퀴 돌게 된다. 처음 운동을 갈 때만 해도 일요일의 꿀 맛 같은 늦잠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에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났지만 지금은 이 조그마한 뒷산 태봉산에 오르는 것이 즐겁다. 태봉산은 그냥 자기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항상 변화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예쁘게 꾸며가

며 여러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하는 것 같았다. 일요일 아침 약 1시간 30분 동안의 짧은 태봉산 등산은 식구가 모여 운동을 해서 좋고 나의 지난 일주일간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다음 일주일의 활력소를 넣어주는 것 같다. 이런 산뜻하고 예쁜 봄이 왔다는 걸 꽃을 피워 보여주는 태봉산이 고맙다.

이렇게 봄이 오면서 모든 것들이 변화하니 산들과 꽃들도 여러 다짐과 각오를 했을 것이다. 마치 봄은 현재 나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다. 중학교 신입생 새내기가 되어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바뀌어진 내가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하고 어엿한 중학생이 되어 지식을 쌓으며 몸과 마음이 성숙해지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차하

봄나물 할아버지

내촌중학교 2학년
이 보 혜

아침에 눈을 뜨면 봄이 다가온다.

따뜻한 날씨도 그렇고 눈앞에 펼쳐지는 푸릇푸릇한 새싹과 하얀 조팝나무들. '후' 하고 불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목련…

아름다운 세상을 활짝 열어주는 봄이 나는 좋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아름다운 봄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

봄나물 할아버지. 그 분은 바로 나의 친할아버지이시다.

항상 봄이 되면 봄나물을 모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할아버지는 지금 80세의 노인이지만 아직도 그 험한 산을 오르내리신다. 물론 우리들을 위해 서다.

언젠가는 할아버지께서 실종이 되신 적도 있다. 그 날 동네사람들과 온 가족들이 나서서 결국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그곳은 바로 운악산의 정상 부근에서였다. 그곳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마를 캐셨던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이유가 우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라니… 며느리인 우리 어머니의 기력을 회복시켜주려고 마를 찾으러 가셨다가 돌아가실 뻔 했던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실려 가셨고 당이 떨어져서 많이 위험했다고 했다. 그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줄 알고 정말 슬펐었다. 자신의 몸보다 며느리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신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

생각해보면 할아버지께선 나에게도 해주신 것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런데 정작 나는 할아버지께 해드린 것이 제대로 없는 거 같다. 언젠가 할아버지께 드린 선물은 목 베게였는데 그것은 할아버지께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거 같았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산으로 들로 나물을 캐러 다니시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 할아버지께 드릴 선물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

무엇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나는 결국 찾아내었다. 그것은 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

게 자라서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다. 이 말씀은 항상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다.

"우리 손녀 보혜야, 나는 네가 결혼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녀석 만나야지"

그렇게 때문에 나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늘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희망하면서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학교에서 상을 타거나 선생님께 칭찬을 받으면 즉시 기뻐하시도록 소식을 전해 드린다.

앞으로는 할아버지께서 캐다 주신 봄나물만 먹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푸릇푸릇한 봄나물을 캐다 드려야지 이렇게 결심해 본다.

차하

아름다운 철학

대경중학교 1학년
윤 혜 연

흔히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 하면 보석이나 화려한 장신구, 꽃 같은 눈에 탁 뜨이는 것들을 떠올리곤 한다.

그러나 아름답다는 것이 꼭 그런 것들만은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것' 들이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꽃이나 나비 같은 흔한 것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기의 똥 싼 바지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모두 보는 눈이 다르고 '아름다움의 철학' 도 다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것'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정치가라면 돈이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 (물론 이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환경 미화원 이라면 쓰레기를 줍는 손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아름다움의 철학' 이란 '엄마의 품' 이다.

'엄마의 품' 에이, 그게 뭐가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건 너무 흔해! 아름다운 것은 분명히 어디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그렇다. 엄마의 품은 너무 흔하고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너무 사소해서 보잘 것 없게 까지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누구나 어릴 적 엄마의 품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그 품은 아주 아늑하고, 따뜻하고, 포근해서 스르르 잠이 올 만큼 편안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자녀를 감싸는 부드러운 엄마의 손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뛰는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던 그 시절이 나는 그립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아주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 아늑하고 포근했던 품이 나의 '아름다움의 철학' 이다. 아름답지 않는가? 그 완전하고 조화로운 아름다움의 철학이…

어쩌면 놀랍기마저 보일 수 있는 그 엄마의 품이 나는 아름답다.

장원

아름다운 것

동남고등학교 1학년
김 옥 봉

지금부터 나는 내가 느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께 보여주려 한다.

'북한'이라는 고향을 떠나 '중국'이라는 낯선 땅에 처음 발 디뎠을 때였다. 내가 9살이고 언니가 12살이었기에 우리는 공부가 필요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버시는 돈은 우리 두 사람 다 공부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언니가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당시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오직 나만 알았다. 나만 공부가 필요한 줄 알았다. 언니는 나를 위해 그 어린 나이에 공부를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다.

나는 그저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고생을 하는 언니는 생각지도 않았다. 매일 학교에 갔다 오면 언니에게 자랑하고는 했다. 그때마다 언니는 웃으면서 내 얘기를 다 들어줬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쥐꼬리 만 한 월급을 어머니께 건네면서 내 학비에 보태라고 했다. 그때, 나는 왜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왜 꼭 언니가 날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언니와 나는 그렇게 자라왔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자유의 땅에 왔다.

나는 중국에서처럼 학교를 다녔고 언니는 검정고시를 보기로 했다. 그때 언니 나이가 18살이었다. 언니는 공부를 한다고 책을 꺼내 들었다가는 다시 접고 말았다. 나는 그런 언니가 너무 싫었다. 그리고 답답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언니가 아직도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했다. 나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런데 쉬운 것을 언니가 모른다고 하자 짜증을 냈다. 그러자 언니는 화도내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너무 미안했다. 언니가 그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인데, 그렇다고 내가 언니보다 많이 잘난 것도 아닌데…. 언니라는 이유로 동생을 위해 자신의 꽃다운 나이를

다 희생해버린 언니…

가장 아름다운 것, 그건 희생이었다. 동생을 사랑한 언니의 희생…

이제는 그 아름다운 것을 깨달았기에 나도 아름다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물론 언니만큼 그것을 잘 실현하기는 힘들겠지만 언니의 반, 아니 반의반만큼이라도 보여주고 싶다. 그것이 평생일지라도…

차상

친구

동남고등학교 1학년
김 동 희

'친구'이 말을 생각하면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말인 것 같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그건 아마도… 친구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게 결국 습관처럼 익숙해져 버린게 아닐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그것이 자기 옆에 있을 땐 그것이 중요함을 모른다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제야 그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고 말이다. 친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있을 땐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친구란 그 존재를 무심하게 넘어가고 만다. 하지만 친구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면 내 마음 한쪽을 든든하게 받쳐주던 지지대가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허전할 수가 없다.

나도 이런 적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였던 애가 있었는데 중학교도 같이 들어와 항상 붙어 다녔다. 그런데 중3이 돼서 자기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그 때, 내 친구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다. 최고의 여자 호텔 요리사가 되겠다고 말이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친구가 없을 때의 그 허전함과 그리움을 중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친구를 찾았지만 친구는 먼저 가고 없었다. 그렇게 마지막 추억을 간직하지 못한 채 전화로 서로의 졸업을 축하해 주었다. 1달이 지나고서 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도 친구는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줬었고 내가 뭘 잘못하면 따끔하게 충고도 해주었었고 어떤 일을 서툴게 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 옆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없는 지금 난 정말 외롭고 쓸쓸하다. 아주 작은 일에도 그 친구가 떠오른다. 내 옆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친구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내 자신이 부끄럽다.

친구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그 자체를 위해 있는 것이었다

는 걸 알게 되었다. 친구가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외롭고 허전하게 된다는 것 말이다. 있을 때 편안함을 위해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지지만 없을 땐 나 자체, 그 마음이 힘들게 된다는 것을.

이제 다시 이 환경에 적응될 것이다. 하지만 그 친구의 존재감을 잊지는 않을 것이다. 내 옆에 언젠가는 그 친구가 돌아올 것임을 믿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내 친구를 난 잊지 않겠다.

차하

친구

동남고등학교 1학년
김 하 나

제 22회 반월문화제를 맞이하여 백일장 대회에 참가한다. 글의 주제는 다양하나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두 번째 보물 '친구'에 대해 써보려 한다.

사람에 관한 중요 어구가 있다. '사람은 관계없이 살아 갈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친구라는 개념이 생겼다. 친구란, 친할 친자에 옛구 자를 써서 이루어졌다. 나는 개념을 확대시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이고 조언자, 부모님의 역할까지 한다고 생각했다.

친구도 소위 말하여 두 가지 양상인 나쁜 친구와 좋은 친구로 나뉜다. 나쁜 친구의 기준은 예의범절하지 못하고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고들 말한다. 가끔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볼 수 있다. 딱 나쁜 친구와 착한 친구로 단정 짓기 힘들다는 것을 어려워한다. 이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단점은 또 다른 장점이기도하다. 모든 친구들은 장점을 가져 나에게 조언자의 역할을 한다.

친구가 있어 선의의 경쟁도 치르게 된다. 시험 성적표가 대표적인 예지만 선의의 경쟁이라서 소중한 친구하는 개념은 패하더라도 쉽게 부식되지 않는다.

친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또 하나의 부모님이다. 부모님을 존경하듯이 친구의 장점을 내가 배워야 하며, 힘들 때는 약간 기대어 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친구는 위에서처럼 매우 중요한 뜻을 함축한다. 매일 보는 친구의 얼굴을 보며 장점을 나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장점을 서로 모색해 내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세상의 모든 친구들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차하

아빠께 하고 싶은 말

동남고등학교 3학년
이 하 림

아빠한테 이런 말 처음 해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은 바쁜 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이 될 출근을 하십니다. 항상 나가실 때마다 "엄마 말씀 잘 들어라.", ?"현용아 너는 아빠 없으면 우리 집 유일한 남자니까 집 잘 지켜야 해 누나 말 잘 듣고."라고 걱정 하십니다. 내가 아빠를 걱정 하는 거에 몇 배는 될 정도로. 그리고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나설 때 애써 웃으시는 모습에서 저 또한 걱정과 허전함을 애써 웃음 뒤에 감춰 봅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이번에는 빨리 돌아오실까' 하는 기대를 해봤지만 엄마의 핸드폰 문자 알람 소리가 잦아질수록 이번에도 아닌가보다 합니다.

드디어 아빠가 돌아오신 날. 예전보다 더 탄듯한 얼굴이 제일 먼저 보이고 다음으로 등에 메고 있는 큰 짐 가방이 보입니다. 일이 힘드셨구나.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도 웃으시며 반갑게 날 안아 뽀뽀해주시는 아빠의 모습에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쉬는 주말 연신 엄마, 동생, 나에게

"나 안보고 싶었어"

"아빠 안보고 싶었어"하신다.

감정 표현이 서툰 나도 이 질문만큼은 살갑게 대답해 드립니다. 고3이라는 핑계로 대화도 많이 하지 못했던 미안함도 표현 할 겸. 또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었던 생각도 죄송했다. 아빠께서 이 일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 가족들을 생각하게 됐고, 아빠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예쁜 딸 될게요. 일이 힘드셔도 제 생각 하면서 힘내세요. 항상 아빠 생각하는거 아시죠? 아빠앙~ 사… 사랑합니다!

장원

약속의 끝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김 영 순

가산에 있는 한 작은 사찰에서 매달 보내오는 소식지가 있다. 좋은 글귀가 많아 뒤적이고 있는데 맨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있다. "매주 일요일은 시간 많이 비워두고 오세요. 직접 갈은 원두커피 마시며 그 향에 취해 봅시다."

원두커피를 좋아 하고 새로 오셨다는 주지스님도 뵐 겸 일요일 날 사찰을 방문했다. 사찰을 오르는 길 양쪽에 진달래, 개나리가 활짝 피어있어서 올라가는 동안 기분이 참 좋았다. 사찰에 도착해보니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잔디밭에 빙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잠시 후에 주지스님께서 커피를 갖고 오신다며 새로 오신 주지스님에 대한 이야기 꽃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앞에서 찻잔과 커피 주전자를 들고 오시는 분이 흐릿하게 아주 흐릿하게 내 시야에 들어왔다. 순간 내 몸에 모든 기운이 바닥나고 전율이 흐르고 주책없는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다. 순간 우당탕 쾅 요란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나고 눈을 크게 떠 보니 커피 잔과 주전자가 땅에 어지럽게 뒹굴고 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뒷수습을 하는 동안에도 스님과 나는 목석처럼 마주 보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아니 시간이 멈추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냥 눈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 가져줄 마음의 여유가 지금 이 순간의 행동에 대해 해명할 아무런 이유도 생각이 나질 않았다.

-이십년 전- 아니 정확히 17년 전 봄날 대학교 신입생으로 이제 막 학교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을 때 학생회관에 앉아 신나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복학생이라며 두 명의 남자 선배가 합석을 해왔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일요일 날 등산을 하자며 친구랑 나를 부추겼다.

일요일 아침 북한산 입구에서 엄청난 양의 짐을 챙겨온 두 선배와 달랑 몸만 온 우

리 친구는 올라갈 땐 서먹서먹하다가 끌어주고 밀어주며 몇 시간이 지나 하산할 때는 둘둘 손을 잡고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 후 축제며 체육대회며 커플을 요하는 모든 행사에 우린 짝꿍이 되어 함께 참석했다. 그는 일곱 살에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친구처럼 연인처럼 2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는 4학년이 되어 자기 미래와 가치관에 대해 무척이나 많은 고민을 하였다. 난 그 고민을 들어주며 그렇게 사랑이란 걸 시작했었다.

그러다가 그가 갑작스럽게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했다. 한 두달 정도 걸릴 거라면서…… 그러나 일년이 지나 내가 졸업할 때까지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후는 그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들리질 않았다. 그에 대해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의 가족조차도 그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해 주질 않았다. 미친듯 살았다. 그를 잊기 위해 미친 듯 뛰어다니며 미친 듯이 공부를 했고 미친 듯 시간은 지났다.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있었던 아무도 모르는 사건들이 그렇게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그를 잊었다.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내 앞에 스님이 되어 서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따지고 싶었지만 이미 속세를 떠난 그에게 아무란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스님은 합장을 하며 말했다. "참 질긴 것이 인연인가 봅니다. " 왜 스님이 되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흐르는 눈물 때문에 내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아들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누군가를 평생 기다리겠노라던 약속은 이제는 놓아야 할 것 같다며 나는 산을 내려왔다. 주지스님과 아들의 눈이 닮았다는 것을 스님은 눈치챘을까?

스님과 나의 영원하리라 믿었던 약속이 오늘 끝났다는 것을 스님은 알고 계실까. 잠시 뒤돌아섰다. 스님은 합장한 채 한참을 그대로 서 계셨다.

차상

아빠 불러보고 싶어요.

포천시 내촌면 내리
정 혜 진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듯 차가운 바람이 가는 겨울을 못내 아쉬워하듯 마지막 몸부림으로 온 세상을 추위로 얼어붙게 한 어느 2월초, 늦은 저녁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아빠가 오늘을 넘기시기 힘들다는 아니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으니 서둘러 강릉으로 내려가자는 큰 오빠의 전화였다. 그동안 나는 어려서부터 아빠와 같이 살지 않고 흔히 말하는 우리 아빠는 작은 집 살림을 하고 우리 가족과는 오래전부터 떨어져 지내셨다. 그러니 당연히 정이 있을리 없고 바람나 나가 사는 처자식 버린 나쁜 아빠로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었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다.

세월이 지나 수십년이 지난 지금 팔순이 다 되어가신 나이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든 위험한 고비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경황이 없고 덤덤하기까지 했다. 서둘러 도착한 병원에는 이제 막 숨을 거두신 아빠의 싸늘한 시신만이 반겨 주었다. 떨리는 손으로 힘들고 지친 이 세상의 끈을 놓아버린 아빠의 손을 잡아 보았다. 차갑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빛을 보게 해 주신 내 부모이기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 동안에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온 내게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할만한, 원망할 대상도 없다는 설움이 나를 더 슬프게 했다.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웠어도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내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하는 건데! 늦은 후회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아빠 손 한번 잡고 놀이공원 놀러 가고픈 나의 어릴 적 소원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젠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 아니 이제는 내 자신 스스로 아빠를 그리워한다. 그래도 전에는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보고 싶어도 다신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가셨기 때문이다. 흔히들 부모가 돌아가시면 가슴 치며 후회한다고들 한다. 난 예외일줄 알았다. 아니 예외이고 싶었다. 한 가정의 주인으로서 자식이 있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등한시 한 부모가 있으나 없으나 무엇이 다르냐고! 하지만 한 쪽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이 허전함은 무엇일까? 그토록 오랜 세월 떨어져 지냈음에도 돌아가셨다는 설움이 이토록 슬프게 할 줄은 몰랐다. 왜 진작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살아생전 용돈 한 푼 드리지 못한 이 못난 자식에 한 맺힌 설움이 들리시나요? 아빠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이 자식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편히 쉬세요.

차하

내이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 태 영

내 이름은 이태영입니다. 나이가 사십이 넘어도 남자 이름 같은 느낌이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합니다.

우리는 여자자매가 무려 일곱 명에 남동생 하나입니다. 그것도 내 바로 밑에 동생이 남동생입니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께 귀여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터를 잘 팔았다는 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 때는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관심을 받으니 그냥 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이름 때문에 겪는 일이 시작됐지요. 같은 반 남자 친구가 이름도 성도 똑같아서 놀림 받고 성적표가 뒤바뀌고 생활기록부도 바뀌어서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셔야 됐고 일년 내내 눈물바람이어서 엄마가 항상 교실까지 동생을 업고 데려다 주셨지요. 또 그것 때문에 신경질도 유난히 많이 부렸습니다. 그래도 내 속은 후련하지 않고 더 모난 성격처럼 되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왜 그렇게 예민해졌는지 정말 웃음이 납니다. 그래서 엄마랑도 미운 정 고운정이 다른 언니들보다 돈독해서 사사로운 하소연도 엄마는 저랑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냥 통화합니다. 그래도 그 때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배려심 많은 남편과 똑똑한 두 아들을 키우며 씩씩한 이름처럼 누구보다도 사랑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다 남자 같은 내 이름 덕분인거 같습니다.

차하

소중한 선물

포천시 신읍동
김 미 현

첫아이 준영이를 출산한지 14개월 차이로 둘째 준희를 출산했다. 그리고 첫째 준영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고 난 40을 가까이 두고 있다.

또래 아이들보다 밥도 잘 먹고 매운 김치, 아구찜, 매운탕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도 귀엽고 기특하다. 주변 엄마들이 부러워하며 "어떻게 하면 돼요."하고 물을 때면 난 서슴없이 "모유 먹이면 돼요."하고 자신있게 말한다.

첫아이 임신 때부터 출산교실을 다니면서 모유의 소중한 선물을 줄 수 있길 바라며 교육도 열심히 듣고 마늘도 볶아 먹고 가슴마사지 또한 열심히 했다. 하지만 힘든 직장 생활 때문인지 준영이는 한 달을 빨리 나왔고 2.6kg으로 겨우 인큐베이터 신세를 면하였지만 준영이에게는 모든 것이 힘들어 보였다. 3일째부터 젖은 돌기 시작했지만 함몰 유두였고 준영이는 젖을 빨 힘이 부족했다. 그래도 우리 모자는 포기하지 않고 20-30번의 시도 끝에 한 번 젖꼭지를 물었고 조금 먹다가 넘쳐나는 젖 양 때문에 또 입을 뗄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 가슴도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딱딱해진 젖꼭지를 준영이가 다시 물기에는 또 벅찼다.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보다 젖을 먹이는 과정이 몇 배는 더 힘들었다.

아이 아빠가 어디서 들었는지 아빠가 젖을 빨아주면 젖도 잘 돌고 가슴도 덜 아프다고 했다. 그래서 퇴근을 하면 양치를 하고 침대 모서리에 나를 앉혀놓고 젖꼭지를 빨았다. 가슴부터 배 속 내장이 다 꼬이는 것처럼 아팠고 눈물이 핑 돌았고 뇌 속까지 멍해지는 듯 했다. 울면서 도망가는 나를 남편이 설득해서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해서 막혔던 젖이 뚫렸는지 가슴이 덜 아팠고 시원했다. 그렇게 20일 정도가 지나면서 잠자던 횟수도 늘었고 젖꼭지 무는 횟수도 조금씩 늘어났다. 그리고 제법 젖을 빠는 힘도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자란 준영이는 7세지만 생일도 빠르고 체력면 에서도 뒤

지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했다. 모유 덕분이다. 첫 아이와의 노력으로 둘째 준희는 24개월 이상을 모유를 먹었고 오빠보다 더 건강한 듯 하다.

난 모유를 사랑한다. 엄마와 아기가 받을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이마에 땀을 몽글몽글 맺혀가며 젖을 빨고 포만감에 새근새근 잠자는 아기의 얼굴, 그 아기를 편안히 지켜보는 엄마의 얼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다.

장려

쿨함과 아름다운것들에 대하여

포천시 군내면 명산리
유 동 계

아침먹고 양치하고 분주하게 애들챙겨 학교에 보내고 출근해서 모닝커피 한 잔 하고 전화받고 문서정리하고 정신없는 하루의 시작 그리고 점심식사 또 다시 오후 업무의 시작, 다시 전화 받고 종목실무자와 상담하고 업무지시 받고, 업무지시 하고, 그런그런 일상을 마치고 나면 어느샌가 퇴근시간…

후배가 어떻게 지내냐고 묻길래 이렇게 바쁘게 산다고 했더니 "언니 쿨하게 언니의 하루를 요약하면 밥먹고 일하고 잤다는 얘기네" "그러게, 넌 참으로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도 정리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다."며 어이없어 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건 쿨이다. 쿨함이 넘치다보니 이제는 쿨함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치부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에라…

젊은이들이 쿨한건 이해가 간다. 컴퓨터와 휴대폰 페스트푸드와 자동차의 세대이기 때문이고 자의식이 강한 세대이기 때문이고,

쿨은 이제 젊은세대들 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제 어디서 듣던 낯설지 않을 만큼 일반화 되어있으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쿨하다고 해야 모임에서 대화도 통할 것 같고 소설과 영화속에서도 쿨한 소설과 멜로가 뜨고 친구들과의 대화속에서도 쿨이 넘쳐난다.

소외가 두려워 쿨하지 않아도 쿨한 척 해야 할 때도 종종 있고 소속의 동질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쿨이 강요되기도 한다.

쿨은 매력있다. 뒤끝없이 깔끔하게, 감성을 앞세우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날카롭게 판단하고 빠르게 결정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과도한 감정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도 되는 아무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쿨이 내게는 처음 신은 구두처럼 불편하고 이물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런 이물감의 원인은 쿨이 확실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어야 함에도 무늬만을 흉내내는 사람들로 인한 것이고 쿨한 인간관계가 제법 멋있다고는 하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는 타자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상처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방어기제로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때 쿨은 이기심의 동어반복일 뿐이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도식화하여 단순화 시키는것을 쿨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와 미세한 감성과 소통의 즐거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찌개의 냄새에서 감각의 즐거움을 맛보고, 딸애의 머리를 빗겨 주면서 고운 머릿결에 행복해지고, 차에 시동을 걸면서는 시작의 충만한 에네르기를 느끼고 왕방산의 봄을 눈에 담고 즐기면서 7개의 신호등을 통화가는 출근길에서 도시와 건축에 대해 생각하고, 쌓여진 일들을 차곡차곡 처리하면서 나른한 성취감을 느끼고, 일을 하면서 동료직원의 담박한 성격과 열의에 감동하고 퇴근길에 언니 만나서 차한잔, 소녀같던 큰언니의 흰머리에 눈물 한방울 찔끔 흘리고…

어찌 이러한 하루의 일들과 느낌을 한마디로 쿨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나는 진부하고 싱거울것 같은 따뜻함을 사랑한다. 사람냄새 흠씬 풍기는, 체온이 느껴지는 타인과의 대화에서 오랜만의 걸려온 동창생의 전화에서 느껴지는 전율을 사랑한다. 사물과 관계를 단순화 하기 보다는 이면에 녹아 있는 정과 풍부한 변화와 쉽게 설명되지 않는 여배고가 그리움을 좋아한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지언정 열정을 믿고 사랑한다.

이러한 일상의 것들을 작지만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장려

약속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박 진 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처럼 나의 결혼 생활도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잠시 멈춘 곳이 십일년의 세월앞에서이다.

두 아이들이 있는 반월문화제에서 나는 불현듯 여고 시절에 친구들과 한 약속이 떠올랐다.

방과 후 반 친구들이 사라진 텅빈 교실에서 나와 한패가 되어있는 다섯명의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 우리들은 문학 소녀들로서 미래에 멋있는 작가가 되기를 맹세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결성된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만의 작은 시집도 내고 소설도 썼다. 적어도 결혼을 해서 뿔뿔이 흩어지기 전까진 우리만의 문학을 무척 사랑했다.

그때에 맹세한 나의 작가 되기는 결혼과 함께 사라졌다.

정말로 질주하는 차속에서 나는 연필조차 잡을 수 없었다.

무엇이 그리 바빴을까?

무엇이 그렇게 시중에 넘쳐나는 노트 한 권 사서 끄적여 보지도 못한채 우리 딸이 쓰는 글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신세가 되었을까?

좋다. 나도 한 번 써보자. 시동만 걸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약속한 것을 지키면 어디에 사는 지도 모르는 친구들을 당당히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이 묻혀있던 따스한 이 고장과 더불어 십일년 동안 한번도 표현해 보지 못한 사랑스런 나의 새끼들의 모습이 필름 지나가듯 책속에 스며져 나올 날들을 나는 이제 시작해 보고 싶다.

입선

아름다운 여인의 시

포천시 관인면
서 선 례

아름다운 여인은 사랑을 부르고 사랑을 아는 남자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품는다.
자연의 법칙이다.

배꽃은 달빛을 받아 은빛 세상이 품어내는 사랑을 부르고 밤새 가슴앓이 한 붉은 꽃은 뚝뚝 핏빛 눈물을 흘린다.

그런 아픈 사랑에 새벽 달빛을 지우고 피어나는 안개낀 아침 해는 애처러움이다.

이런 사랑마저도 잃어버린 그대 봄이 와도 물오르지 않고 서있는 슬픈 나무와 같이 메마른 강바닥을 드러내고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

그런 죽음 같은 가슴에도 어디선가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마음 한 구석 희미한 눈물이 살아나고 있다.

꽁꽁 얼어버린 겨울 가슴으로 스며들어 언 가슴을 녹이고 있다.

깨지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밤새 비명지르고 있어도 사랑의 감정은 뜨겁기만 하다.

그 사랑을 질투하는 겨울자락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다.

다시는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은, 봄 눈을 품어 눈물흘리게 하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새 생명을 품어만 간다.

새들이 노래하고 초록빛 기운이 우울한 가슴에 기쁨으로 가득차 올라 꽃 분홍색이 너무도 아름답다.

깊고 깊은 그리움처럼 샘물이 솟아나고 온 세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 버렸다. 더

이상 찬바람은 가슴을 얼리지 못하고 새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해서 빛이 나고 있다.

저녁 별빛의 부드러운 아름다움과 새벽별의 청명함이
무한한
새 생명을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스며들어만 간다.
마음을 비우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아름다운 여인의 가슴은
어머니의 품이다.

2008 제22회 반월문화제

사생대회 입상작품집

유치부 상상화

최우수	유진수	동심유치원	
우수	이현진	아람유치원	
우수	조우주	포스트창조미술학원	
특선	임정현	자연과동화어린이집	
특선	최예지	원암어린이집	

초등부 저학년

최우수	이주휘	송우초등학교	2학년
우수	강승범	태봉초등학교	3학년
우수	백다경	태봉초등학교	1학년
우수	강은빈	송우초등학교	3학년
특선	최민지	추산초등학교	2학년
특선	김예찬	신봉초등학교	1학년
특선	백나임	태봉초등학교	3학년
특선	홍정민	포천초등학교	2학년
특선	김현빈	왕방초등학교	1학년
특선	김민석	포천초등학교	1학년

초등부 고학년

최우수	김경실	추산초등학교	5학년
우수	박민지	포천초등학교	4학년
우수	이채린	태봉초등학교	6학년
특선	김나영	송우초등학교	4학년
특선	이동규	태봉초등학교	4학년
특선	정희아	추산초등학교	5학년

초등부 판화

대상	전희재	포천초등학교	6학년
우수	이동기	태봉초등학교	6학년
우수	최승우	포천초등학교	5학년
특선	정찬	신북초등학교	5학년
특선	황민혁	태봉초등학교	6학년

초등부 한국화

우수	이원정	송우초등학교	6학년
특선	최석용	가산초등학교	6학년
특선	이찬희	가산초등학교	4학년

초등부 포스터

특선	홍예지	태봉초등학교	4학년

중등부 사생화

최우수	조해선	송우중학교	3학년
우수	이지혜	갈월중학교	2학년
우수	최석주	송우중학교	1학년
특선	서하늘	영중중학교	3학년
특선	황인휘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특선	조현정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특선	곽윤재	송우중학교	1학년

중등부 정물화

최우수	이영훈	대경중학교	3학년
특선	함산하	송우중학교	1학년

중등부 소묘

우수	황수연	내촌중학교	3학년
우수	신소영	영중중학교	2학년
특선	김경은	갈월중학교	3학년
특선	황지원	송우중학교	3학년

중등부 판화

최우수	최미애	영중중학교	3학년
우수	강창완	대경중학교	1학년
특선	김수정	송우중학교	2학년
특선	박세빈	갈월중학교	1학년

중등부 한국화

특선	최정연	갈월중학교	1학년

중등부 포스터

최우수	김선혜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우수	김은진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특선	이종범	영북중학교	1학년
특선	정민기	포천중학교	1학년

고등부 사생화

최우수	서혜림	송우고등학교	1학년
우수	김은솔	동남고등학교	1학년
우수	차정희	포천일고등학교	2학년
특선	한진희	송우고등학교	2학년
특선	김예림	포천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 소묘

우수	홍지혜	포천고등학교	3학년
특선	임형수	동남고등학교	2학년
특선	김종현	동남고등학교	2학년
특선	김초이	송우고등학교	1학년

고등부 판화

특선	김다솜	동남고등학교	1학년

고등부 포스터

특선	이엄지	포천일고등학교	1학년

일반부 사생화

최우수	김옥분	포천시 신읍동	
우수	허 옥	포천시 송우리	
특선	신산옥	포천시 신북면	
특선	김현미	포천시 신읍동	
입선	김영자	포천시 신읍동	
입선	김애임	포천시 신읍동	

동심유치원
유 진 수

최우수

아람유치원
이 현 진

우수

포스트창조미술학원
조 우 주

우수

특선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임 정 현

특선

원암어린이집
최 예 지

최우수

송우초등학교 2학년
이 주 휘

우수

태봉초등학교 3학년
강 승 범

우수

태봉초등학교 1학년
백 다 경

우수

송우초등학교 3학년
강 은 빈

추산초등학교 2학년

최 민 지

특선

신봉초등학교 1학년

김 예 찬

특선

특선

태봉초등학교 3학년
백 나 임

특선

포천초등학교 2학년
홍 정 민

특선

왕방초등학교 1학년
김 현 빈

특선

포천초등학교 1학년
김 민 석

최우수

추산초등학교 5학년
김 경 실

우수

포천초등학교 4학년
박 민 지

우수

태봉초등학교 6학년
이 채 린

특선

송우초등학교 4학년
김 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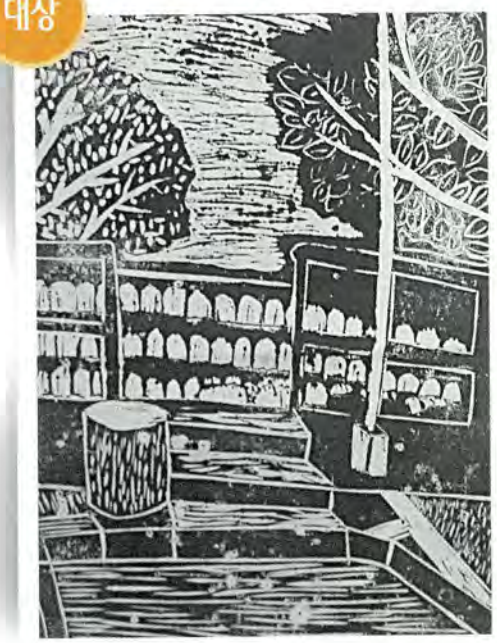
특선

태봉초등학교 4학년
이 동 규

특선

추산초등학교 5학년
정 희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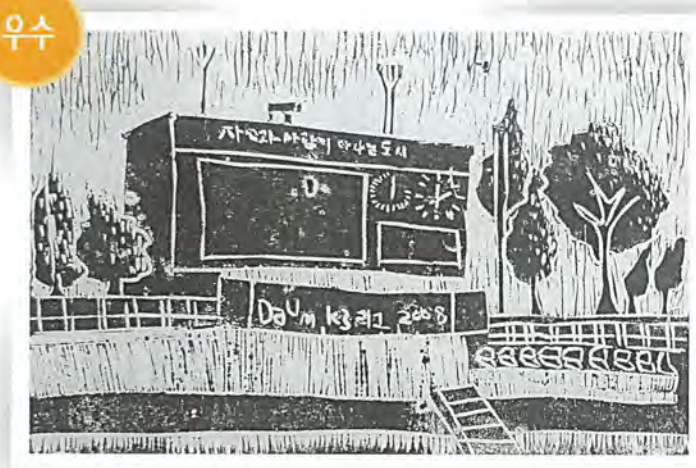
대상



포천초등학교 6학년
전 희 재

우수

태봉초등학교 6학년
이 동 기



우수

포천초등학교 5학년
최 승 우

특선

신북초등학교 5학년
정 찬

태봉초등학교 6학년
황 민 혁

특선

송우초등학교 6학년
이 원 정

우수

특선

가산초등학교 6학년
최 석 용

가산초등학교 4학년
이 찬 희

특선

특선

태봉초등학교 4학년
홍 예 지

송우중학교 3학년
조 해 선

최우수

갈월중학교 2학년
이 지 혜

송우중학교 1학년
최 석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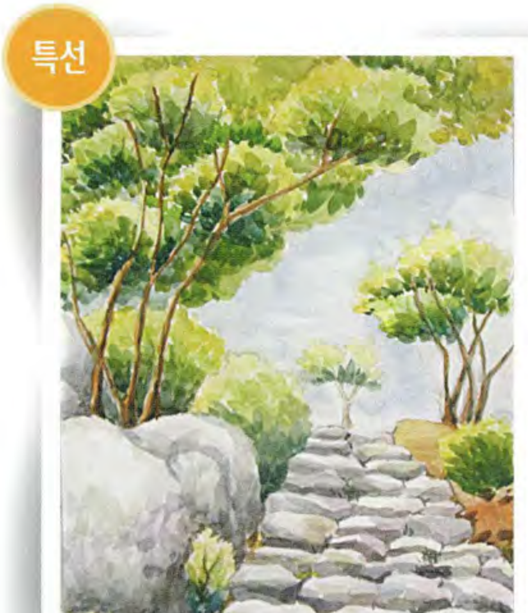
특선

영중중학교 3학년
서 하 늘

특선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황 인 휘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조 현 정



송우중학교 1학년
곽 윤 재

최우수

대경중학교 3학년
이 영 훈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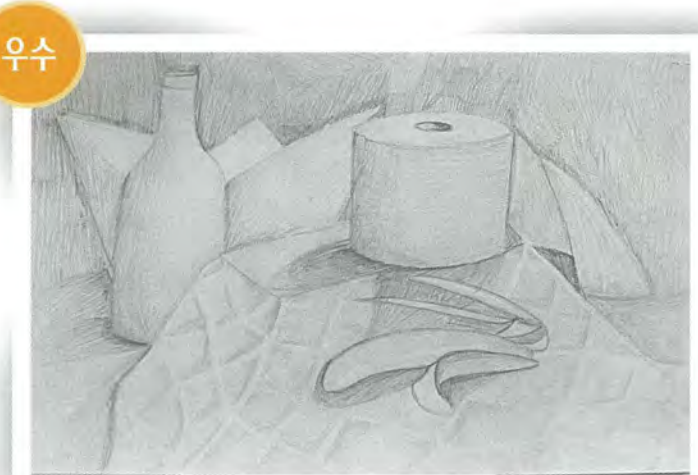
송우중학교 1학년
함 산 하

내촌중학교 3학년
황 수 연

우수

영중중학교 2학년
신 소 영

우수



특선

갈월중학교 3학년
김 경 은

특선

송우중학교 3학년
황 지 원

최우수

영중중학교 3학년
최 미 애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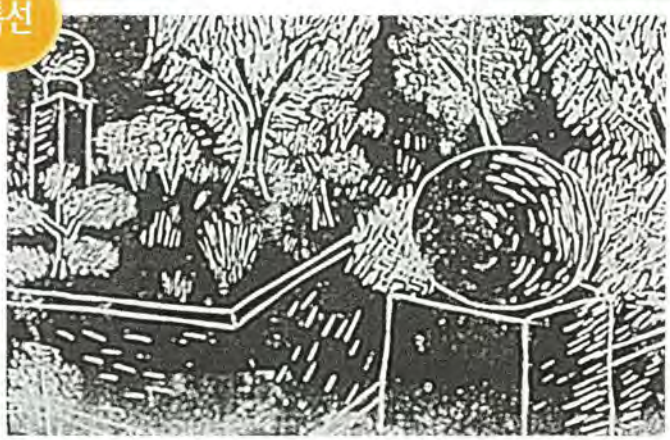
대경중학교 1학년
강 창 완

특선

송우중학교 2학년
김 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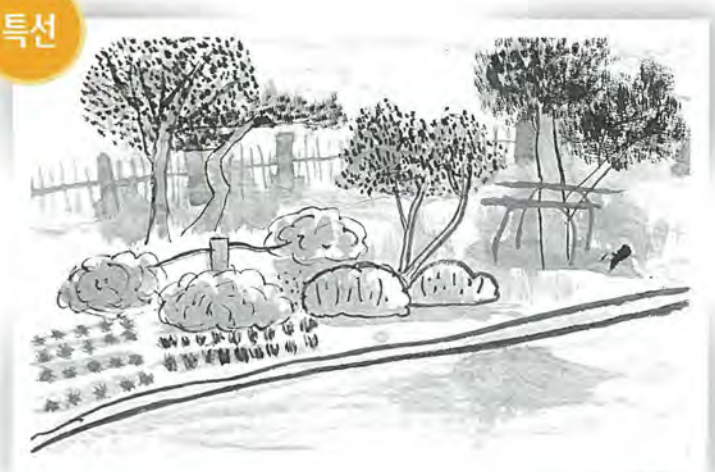
특선

갈월중학교 1학년
박 세 빈



갈월중학교 1학년
최 정 연

특선



최우수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김 선 혜

우수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김 은 진

특선

영북중학교 1학년
이 종 범

특선

포천중학교 1학년
정 민 기

최우수

송우고등학교 1학년
서 혜 림

우수

동남고등학교 1학년
김 은 솔

우수

포천일고등학교 2학년
차 정 희

특선

송우고등학교 2학년
한 진 희

특선

포천고등학교 3학년
김 예 림

우수

포천고등학교 3학년
홍 지 혜

특선

동남고등학교 2학년
임 형 수

특선

동남고등학교 2학년
김 종 현

특선

송우고등학교 1학년
김 초 이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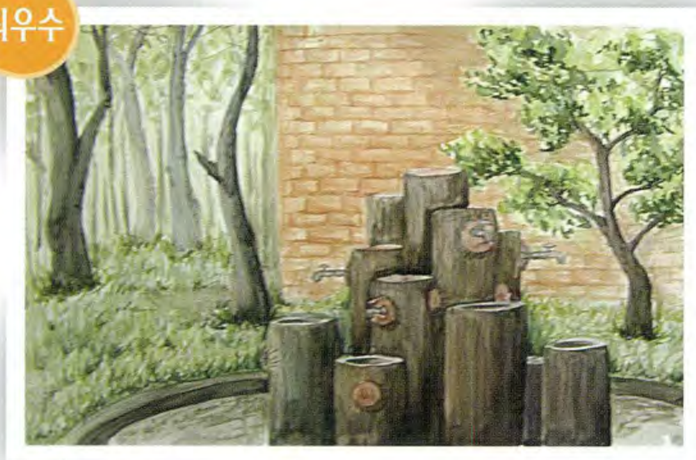
동남고등학교 1학년
김 다 솜

특선

포천일고등학교 1학년
이 엄 지

포천시 신읍동
김 옥 분

최우수



포천시 송우리
허 옥

우수

특선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신 산 옥

특선

포천시 신읍동
김 현 미

포천시 신읍동
김 영 자

입선

포천시 신읍동
김 애 임

입선

2008 제22회 반월문화제

서예대회 입상작품집

◉ 초등부 한글

최우수	김영찬	송우초등학교	2학년
우수	이영현	포천초등학교	6학년
우수	강현아	포천초등학교	5학년
특선	한나언	포천초등학교	4학년
특선	양승직	포천초등학교	4학년
특선	권지수	추산초등학교	5학년
특선	이승희	태봉초등학교	6학년

◉ 초등부 한문

최우수	박지윤	포천초등학교	4학년
우수	허재경	태봉초등학교	6학년

◉ 중등부 한문

최우수	이병민	포천중학교	3학년
우수	홍주연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특선	이수현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특선	김혜리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 중등부 한글

특선	한도언	포천중학교	1학년
특선	허은	포천중학교	3학년

◉ 고등부 한문

최우수	이해인	포천고등학교	1학년
우수	이병무	포천일고등학교	1학년

◉ 고등부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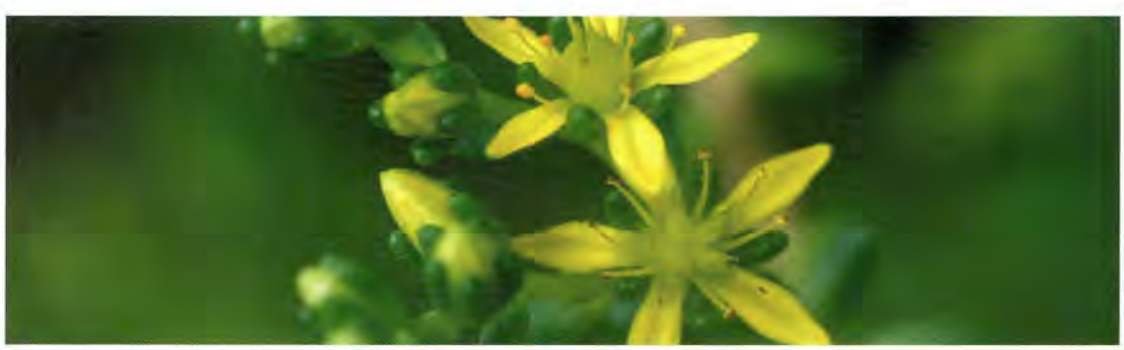
우수	이연우	송우고등학교	1학년

◉ 일반부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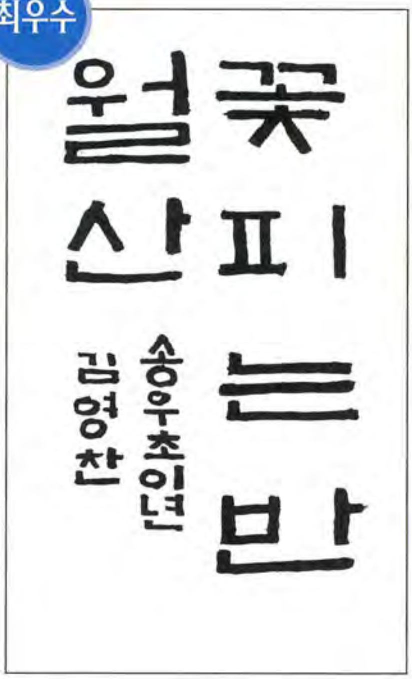
최우수	한현민	포천시 신읍동
우수	안숙자	포천시 신읍동
특선	정월순	포천시 군내면 용정3리
특선	한복수	포천시 소흘읍

◉ 일반부 한문

우수	유창렬	포천시 영북면 운천9리
우수	이옥주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특선	함영대	포천시 선단동
특선	박치훈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특선	김용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특선	김수덕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특선	구수연	포천시 선단동
특선	유명렬	포천시 영북면 운천9리
입선	최장식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입선	권혁윤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입선	임병식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입선	김필연	포천시 신읍동
입선	박광일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입선	나정화	포천시 영북면 운천9리
입선	류태균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입선	이덕성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입선	김용주	포천시 화현면
입선	김진주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입선	구자영	포천시 선단동
입선	박광모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입선	유상호	포천시 군내면 유교2리



최우수



송우초등학교 2학년

김 영 찬

우수

포천초등학교 6학년
이 영 현

우수

포천초등학교 5학년
강 현 아

특선

포천초등학교 4학년
한 나 언

특선

포천초등학교 4학년
양 승 직

특선

바른 마음 고운 행동

추산초 5년 권지수

추산초등학교 5학년
권 지 수

특선

바른 마음 고운 행동

태봉초 6년 이승희

태봉초등학교 6학년
이 승 희

최우수

至誠無息

抱川初校四年朴智潤

포천초등학교 4학년
박 지 윤

우수

至誠無息

泰峯初 六年 許載炅

태봉초등학교 6학년
허 재 경

우수

蓬生麻中不扶直

抱川女子中學校二學年 洪周妍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홍주연

최우수

讀書百遍義自見

抱川中學校三學年 李炳玟

포천중학교 3학년
이병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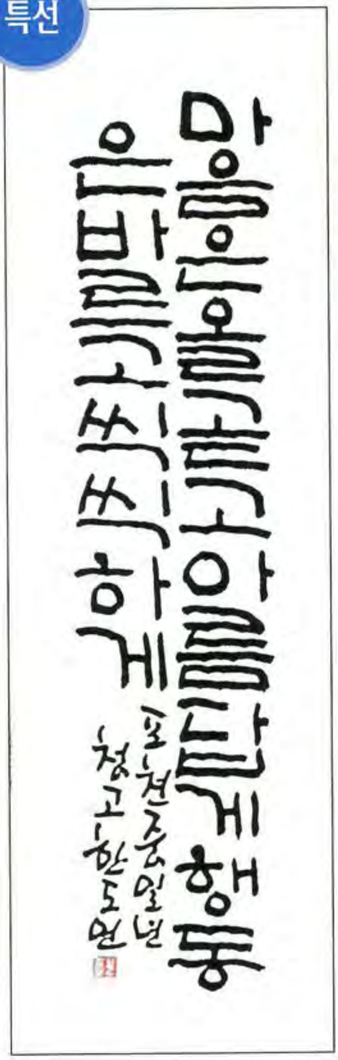
특선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이 수 현

특선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김 혜 리

특선



포천중학교 1학년
한 도 언

특선

포천중학교 3학년
허 은

최우수

포천고등학교 1학년
이 해 인

우수

포천일고등학교 1학년
이 병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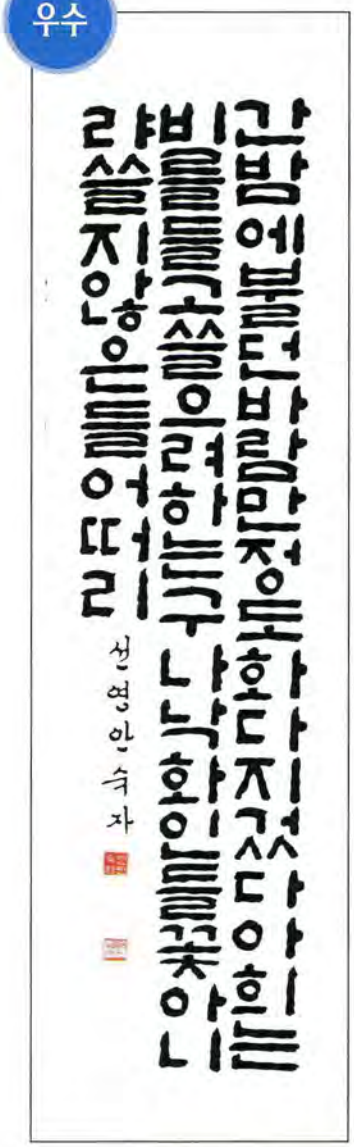
우수

송우고등학교 1학년
이 연 우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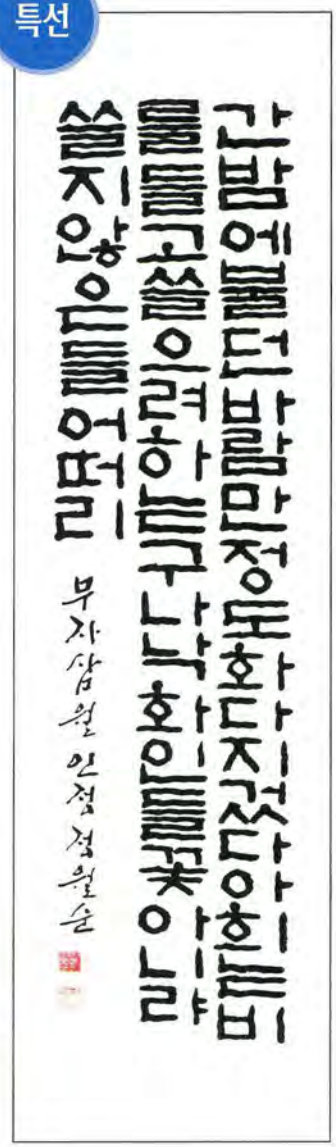
포천시 신읍동
한 현 민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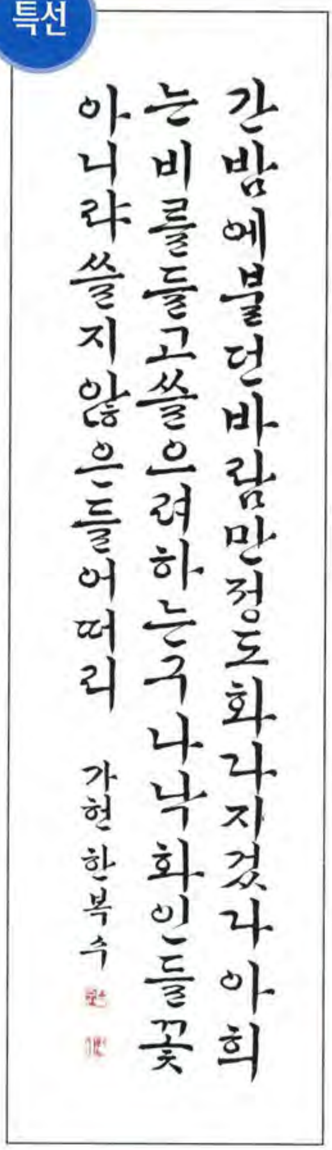
포천시 신읍동
안 숙 자

특선



포천시 군내면
정 월 순

특선



포천시 소흘읍
한 복 수

우수

君子憂道不憂貧

戊子春吉日雲峯柳彰烈

포천시 영북면
유 창 렬

우수

天鑑忠腸兢予違神
依正道終證衛

李玉朱

포천시 일동면
이 옥 주

특선

포천시 선단동
함 영 대

특선

포천시 소흘읍
박 치 훈

특선

君子憂道不憂貧

戊子穀雨之節 耕雲金龍等

포천시 영북면
김 용 순

특선

君子憂道不憂貧

戊子季春 溢空 金修德

포천시 소흘읍
김 수 덕

특선

포천시 선단동
구 수 연

특선

포천시 영북면
유 명 렬

입선

君子憂道不憂貧

戊子孟夏光甫崔長植

포천시 소흘읍
최 장 식

입선

君子憂道不憂貧

戊子春吉日栗山權赫允

포천시 영북면
권 혁 윤

입선

君子憂道不憂貧

戊子季春節長川仕炳植

포천시 영북면
임 병 식

입선

天鑑忠腸鏡不違
神依正道終潛衛

戊子季仲夏贈江 金必連

포천시 신읍동
김 필 연

입선

天鑑忠腸競不違神依
正道終潛衛

戊子春 朴光日

포천시 군내면
박 광 일

입선

君子憂道不憂貧

戊子春日香林羅貞花

포천시 영북면
나 정 화

입선

포천시 가산면
류 태 균

입선

포천시 영북면
이 덕 성

입선

포천시 화현면
김용주

입선

포천시 소흘읍
김진주

입선

포천시 선단동
구 자 영

天鑑忠腸競不違
神依正道終潛衛

戊子春 朴光模

입선

天鑑忠腸競不違
神依正道終潛衛

戊子春仲 夏幽靜 具滋英

포천시 군내면
박 광 모

입선

天鑑忠腸競不違神依
正道終潛衛

戊子春 俞相浩

포천시 군내면
유 상 호

2008 제22회 반월문화제

사진대회 입상작품집

◉ 초등부

최우수	김예지	외북초등학교	6학년
우수	윤정헌	외북초등학교	6학년
우수	최진	도평초등학교	6학년
특선	이상빈	가산초등학교	6학년
특선	변제인	송우초등학교	5학년
특선	이 산	신북초등학교	4학년
특선	김진혁	포천초등학교	5학년
특선	송민석	영중초등학교	5학년

◉ 중등부

최우수	이소희	동남중학교	3학년
우수	강윤희	동남중학교	2학년
우수	손지영	동남중학교	3학년
특선	이진원	포천중학교	3학년
특선	이광석	포천중학교	2학년
특선	서호영	동남중학교	1학년

◉ 고등부

우수	성미숙	동남고등학교	1학년
특선	김정우	동남고등학교	1학년
특선	김주연	동남고등학교	3학년

◉ 일반부

우수	이병준	포천시 신북면
특선	박진원	포천시 신북면
입선	이혜정	포천시 소흘읍
입선	김영화	포천시 이동면

최우수

외북초등학교 6학년
김 예 지

우수

외북초등학교 6학년
윤 정 헌

우수

도평초등학교 6학년
최 진

특선

가산초등학교 6학년
이 상 빈

특선

송우초등학교 5학년
변 제 인

특선

신북초등학교 4학년
이 산

특선

포천초등학교 5학년
김 진 혁

특선

영중초등학교 5학년
송 민 석

최우수

동남중학교 3학년
이 소 희

우수

동남중학교 2학년
강 윤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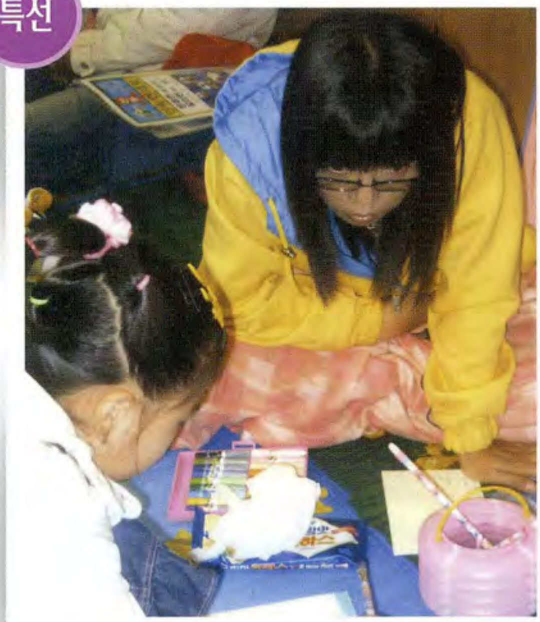
우수

동남중학교 3학년
손 지 영

특선

포천중학교 3학년
이 진 원

특선



포천중학교 2학년
이 광 석

특선

동남중학교 1학년
서 호 영

우수

동남고등학교 1학년
성 미 숙

동남고등학교 1학년
김 정 우

특선

동남고등학교 3학년
김 주 연

특선

우수

포천시 신북면
이 병 준

특선

포천시 신북면
박 진 원

입선

포천시 소흘읍
이 혜 정

입선

포천시 이동면
김 영 화

좋은책읽기 | 독후감 입상작품

초등부

장원	서준	축석초등학교	2학년
차상	조유빈	포천초등학교	3학년
차하	노을	추산초등학교	2학년
차하	정지혁	태봉초등학교	3학년
차하	이은비	추산초등학교	5학년

중등부

장원	이강현	포천중학교	2학년
차상	현우성	포천중학교	1학년
차하	현지윤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차하	오윤아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고등부

차상	조혜미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차하	박찬희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일반부

차상	안혜정	추산초등학교 학부형	
차하	이진숙	추산초등학교 학부형	

장원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를 읽고

축석초등학교 2학년
서 준

베른트는 남몰래 보보와 도도라는 인형을 가지고 놀아요. 베른트에게 보보는 아빠이고,도도는 엄마가 되는 거라고 해요. 베론트가 인형에게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붙힌 이유는 엄마 아빠가 서로 이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는 서로 성격차이 때문에 따로 살게 되었지요. 베른트는 너무 슬퍼서 자신이 사랑하는 인형에게 싸움을 시키고,소리 지르고, 어느 때는 인형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랬겠지요. 어쩌면 엄마와 아빠가 헤어진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을 거예요. 베른트는 엄마와 살게 되었는데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아빠의 빈자리는 너무 컸어요.

어느날 베른트는 아빠에게 언제 돌아오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 셋은 다시 함께 살지 못 할 거라고 했어요. 베른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를 만나고 엄마 집에서 생활하면서 결국 아프고 말았어요. 불쌍한 베른트. 베른트가 아파도 아무리 슬퍼해도 베른트의 가족은 다시 합치지 못하는 건가요? 베른트는 아빠, 엄마 모두를 사랑해요. 그런데 왜 아빠 엄마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까요? 베른트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아빠가 방문을 열고 베른트에게 밥을 먹자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베른트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일 거예요. 베른트에 비해 우리 가족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양보와 이해를 해요.기회가 된다면 베른트에게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베른트야 난 준이라고 해. 많이 힘들었겠구나.지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

가족이 화목해지려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항상 마음에 사랑과 믿음이 우러나와야해.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자.꼭 약속해. 알았지?

차상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

포천초등학교 3학년
조 유 빈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데 왜 엄마, 아빠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까?

베른트는 거의 매일 이런 생각을 한다.

나도 엄마, 아빠가 싸우실 때면 베른트와 같은 생각을 하게된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엄마, 아빠는 많이 싸우지 않으셔서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시면 난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

사실 난 엄마, 아빠가 싸우실 때마다 불안하다.

저렇게 계속 싸우시다가 정말 이혼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마를 따라가면 친구들이 아빠가 없다고 놀릴 것 같고 아빠를 따라가면 엄마가 없다고 놀릴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화목하게 평생동안 같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책은 독일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한 좋은 책이다.

책 첫 페이지를 펼치면 슬퍼보이는 큰 짐가방이 그려져 있다.

바로 베른트의 아빠가 집을 나갈 때 싸들고 간 가방인것이다.

비록 경험하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베른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내가 베른트라면 하고 생각해 본 것이다.

그렇게 하면 꼭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럴때마다 눈물이 찔끔 나오고 가슴이 찡해진다.

이건 비밀인데, 나의 친한 친구도 부모님이 이혼해서 지금은 아빠랑만 살고 있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 이름은 절대 말할 수 없다.

그 친구가 힘들어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부모님이 이혼했어도 참 활발하게 잘 지낸다.

겉으로 보기엔 그래보인다.

나라면 그렇게 아무일 없는 것 처럼 살아갈 용기가 없다.

베른트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부터는 말을 잃어 조용한 아이가 되어버렸다.

쓸쓸한 표정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팠다.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걸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나를 믿고 솔직하게 말해준 그 친구가 참 고맙다.

그래서 그 애와 나는 비밀을 함께 나눠 가진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베른트는 보보와 도도라는 인형을 등장시켜 자기의 마음을 대신하고 있다.

나에게도 해피라고 부르는 강아지 인형이 있다.

지난 성탄절에 산타할아버지께서 선물해 주신 인형인데 내겐 참 소중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을 때는 아빠가 이사하고 난 뒤 뒤죽박죽 엉망이 된 집을 보면서 베른트는 책상 밑에 숨어버리고 만다.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외롭고 가엽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베른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부모님은 비록 헤어졌지만 여전히 베른트를 사랑하고 계실거라고 말해주고 싶다.

베른트야, 힘을 내

차하

아빠는 지금 하인리히 거리에 산다

추산초등학교 2학년
노 을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너무 슬펐다. 베른트는 동화책 속에 인물이지만 우리 주위를 보면 가까운 곳에서도 외롭고 어린 베른트가 실제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으면서 이혼하면 안되지요!'라고 어른들께 얘기하고 싶다. 남겨진 아이들은 너무 무섭고 외롭고 슬프다는걸 모르시는 걸까?

나의 부모님도 가끔은 베른트의 부모님처럼 말다툼을 하실 때가 있긴 하지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자매와 놀아주시는데…

둘 중에 한사람만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져주면 될텐데 어떤 어른들은 그렇게 안되나 보다.

그래도 다행은 지혜롭게 도도와 보보를 양쪽집 침대에 놓겠다는 베른트의 생각이 기발하면서 덜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힘내! 베른트"

그래도 넌 아빠, 엄마를 모두 볼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그렇지 못하고 고아원에 맡겨져서 평생 부모님을 볼 수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대.

"어디에 있든 패밀리는 늘 함께 하는 거야! 노을아!"라고 하신 아빠의 말씀이 새삼 소중하게 떠오른다.

부모님이 다투시지 않도록 동생도 잘 데리고 놀아주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딸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빠, 엄마, 동생아! 서로 사랑하며 위해주고 참아주는 '패밀리'가 되도록 서로서로 노력해요."라고 나는 오늘 저녁밥 먹는 시간에 얘기해야겠다.

"사랑해요! 우리가족! 홧팅!"

지구 반대쪽가지 구멍을 뚫고 가보자

태봉초등학교 3학년
정 지 혁

땅 속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있을까? 지렁이가 열심히 흙을 파먹고 있을까? 그럼 그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 예쁜 꽃이 피고 내가 밟고 다니는 땅 위에서부터 시작해 볼까?

땅을 파기 위해선 부드러운 흙을 찾아야겠지? 삽과 양동이를 들고 파 보자. 흙을 파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선 파낸 흙을 퍼올려 바깥으로 보내야 한다. 곧 딱딱한 바위를 만난다. 이 때 필요한건 드릴과 안전모이다.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강이나 바다가 되는 물을 만날 수 있다. 이번엔 잠수복이 필요하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따뜻한 온천물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 밑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있을 것이다. 이번엔 석면 잠수복이 필요하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마그마' 맨들, 핵을 통과해야 할때다. 이 때는 영화에서나 이소연 누나가 타고 간 제트 탐사선이 필요하다. 탐사선을 타고 외핵과 내핵을 지나면 지구의 한 가운데 도착하게 된다. 이곳에서부터는 더 이상의 아래가 없다. 그러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까? 아니다. 반대편으로 가보는 것이 좋겠다. 역시 내가 왔던 길과 똑같이 생겼다.

땅속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있었다. 딱딱한 바위 중에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보석도 있어서 우리 엄마 목걸이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뼈들과 조개껍데기도 있어서 잘 챙겨 친구들에게 어깨 으쓱하며 보여줄 수 있겠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간헐 온천에 호수를 연결해 우리 집 욕실을 목욕탕처럼 만들 수도 있겠다. 아빠 차의 기름도 채워 줄 수 있겠다.

땅속에서는 셀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일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그런데 난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 기회가 되면 이 책에서 나오는 준비물을 챙겨 나도 한 번 구멍을 뚫어 볼까? 그 전에 땅 속 세상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해야겠다. 언젠가 내가 아이들에게 땅 속 견학을 설명해주고 있는 선생님이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무기 팔지 마세요!

추산초등학교 5학년
이 은 비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초등학교의 5학년 보미란 아이가 같은 반인 경민이가 쏜 비비탄 총알을 이마에 맞은 일이다. 그 후 보미는 실수로 선생님께 우리반의 남자아이들이 비비탄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았다. 그 후 보미는 총을 빼앗긴 남자아이들의 표적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하였다. 교내 밖에서 남자아이들에게 비비탄 총 한발씩 맞으며 보미는 남자아이들의 부모님과 얘기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성공했다. 그 후 보미는 단짝 민경이와 같이 무기에 대해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나중엔 일곱명이서, 나중엔 거의 전 학교 학생들과 같이 활동을 했다. 그리고 '무기 팔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홈페이지를 우연히 본 미국의 초등학교 6학년 제니는 이 사실을 미국 사람들에게 연설로 호소하며 보미가 시작한 것처럼 활동해 모임 2개를 만들었다. 그뒤 미국의 약 100만명의 사람들은 이 뜻에 동참하고 같이 활동하였다. 그래서 결국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어느 날 제니가 TV에 나와서 보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모든 게 이 아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각 보미의 부모님은 TV에서 그 사건을 보았다. '무기 팔지 마세요!'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든 보미의 모습을…

나도 이 이야기의 보미처럼 비비탄 총에 맞아본 경험이 있다. 또한 얼마나 아프고 위험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소설이 사실이라면, 나도 보미에게 동참하고 싶다. 무기, 전쟁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무기를 원하는 나쁜 어른들. 아니 꼭 나쁜 어른들이 아니어도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기가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있을실 테니까 말이다. 그러면 미래에는 무기란게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만세!

장려

로미오와 줄리엣

포천중학교 2학년
이 강 현

베로나에 어느 자존심이 강한 두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면 항상 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플렛 가문의 로미오가 몬타규 가문의 파티에 몰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 로미오가 줄리엣을 보려고 몰래 참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파티가 시작되자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춤을 추고 나서 로미오는 줄리엣이 있는 곳이 보이는 남누 뒤에서 혼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리엣이 창문에 나타났습니다. 줄리엣이 로미오를 발견 하자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가문의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서로의 사랑을 몰래 맺었습니다. 그리고 줄리엣은 지금 경비병들이 찾고 있다고 말을 해 준뒤 어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음에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줄리엣은 선을 보게 되었고 선을 본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미오는 그것을 듣고 신부에게 가서 방법을 알려달라 하였더니 어떤 약을 주며 그것을 줄리엣에게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미오는 줄리엣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줄리엣은 그 약을 자기 전에 먹었고 다음날 줄리엣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어서 마치 죽은 것 처럼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줄리엣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줄리엣과 결혼하기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줄리엣의 약혼자와 로미오는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끝에는 로미오가 이겼습니다.

로미오는 얼른 무덤을 파헤친 후에 관 뚜껑을 열어 보았습니다. 줄리엣은 여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로미오는 줄리엣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자신도 같이 가겠

다고 자신의 칼을 빼내어 죽었습니다.

로미오가 죽고 난 10분 뒤…

줄리엣은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로미오가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줄리엣은 흐느끼며 자신도 로미오가 있는 하늘로 가겠다고 로미오의 칼을 손에 쥐고 칼로 찔러 죽었습니다.

그리고 몇분 뒤… 경비병들이 와서 죽은 줄리엣과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고 놀라서 캐플렛과 몬타큐에 알렸습니다.

둘은 죽은 자신의 아들, 딸을 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화해를 하였고 로미오와 줄리엣의 동상을 같이 세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낀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 했지만 두 가문의 부모님께 허락 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한 것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중간에 사람들이 끼어들어 왠지 일이 조금 더 복잡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둘을 이어준 신부님이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 같다. 비록 둘은 죽었지만 지금 쯤 하늘에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을 것이다.

메밀꽃 필 무렵

포천중학교 1학년
현 우 성

허 생원은 거느린 가족도 없는 장돌뱅이었다. 그는 얼금뱅이에도가 왼손잡이로 그나마 재산까지 날려 갈 곳이 없어 동업자인 조선달과 떠도는 중이었다. 어느 여름날 둘은 술집에서 여자와 놀아나고 있는 젊은 총각 동이를 보게된다. 그것을 보고 괜히 화가 치민 허생원은 따귀를 한 대 갈기고는 욕을 하고 쫓아버렸다. 나중에야 허생원과 동이가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아마 이 때도 아버지같은 마음으로 혼낸 것이 아닐까?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부자지간의 정은 끊을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아마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근원적 원리일 것이다.

그렇게 호되게 혼이 나고도 아무 소리 못하고 밖으로 나간 동이도 그랬다. 아마 나같으면 남의 일에 무슨 상관이냐며 대들었을 것이다. 동이 역시 자식된 마음으로 대들지 않고 뜻대로 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했을 것이다.

그런데 허생원은 이런 동이의 모습에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런데 그때 동이가 뛰어들어와, "생원 당나귀가 바를 끊고 야단이에요"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을 걸었다. 나는 동이의 이 인품도 부러웠다. 자신의 허물을 들추었다고 무시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마음이었다. 이런 성격이라면 나도 친구들과 싸우는 일이 없고 선생님께 야단을 듣거나 충고를 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허생원의 당나귀는 그와 함께 생을 살아온 유일한 동반자였다. 비록 지금은 가늘어진 목뒤털과 눈꼽이 낀 눈이 주인처럼 볼품없는 모습이나 나귀는 생원에게 있어 짐승 이상의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늙은 나귀가 어느 암당나귀를 꾀어 제 새끼를 얻었다고 한다. 생원에게도 딱 한번 여자가 있었다. 물레방아간에서 성서방네 처녀를 만난것이다. 그 후 처녀는 생

원의 아이를 낳고 결국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그런데 동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다. 어머니가 처녀적에 제천에서 동이를 낳고 쫓겨나 아비도 없고 성도 없는 채로 살아온 것이었다. 허생원도 동이도 의지 할 때 없이 외로운 몸이었다. 허생원은 동이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이가 측은한 마음도 들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생원은 그만 발을 헛디뎌 개울 한 가운데서 넘어지고 말았다. 동이는 생원을 얼른 부축해 업었다. 동이는 생원을 업은 채로 개울을 건넜다. 개울을 건너고서도 생원은 계속 업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과 살을 부대끼는 생원에게 동이 등허리의 따뜻함은 정겹고 반가웠을 것이다.

나귀가 걷기 시작했을 때 채찍이 동이의 왼손에 들려 있었다. 동이 역시 허생원처럼 왼손잡이였던 것이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허생원은 동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되었다. 몸도 마음도 외로운 두 사람은 친 부자가 아닐지라도 함께라는 사실이 많은 힘을 줄 것이다. 가족이라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이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힘들거나 아플 때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같은 피를 나눈 나의 가족들인 것이다. 그리고 꼭 같은 핏줄이 아니더라도 내 주위의 이웃과 친구들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다. 모두들 이 당연한 진리를 깨닫는다면 부모에게서 버려지는 아이들이나 지삭들에게서 버려지는 불우한 노인들이 없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다.

로미오와 줄리엣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현 지 윤

제목만 들어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이다. 전에 한번 읽어서 내용의 흐름을 알고 다시 읽었더니 주인공들의 슬픈 감정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이탈리아 베로나 마을에 원수 가문의 아들 딸로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은 가면무도회에서 첫눈에 반해 다음날 로렌스 신부님을 통해 둘만의 결혼을 하게 된다. 제일 행복할 때 비극은 시작된다. 줄리엣의 사촌오빠 티볼트가 로미오와 결투하다 죽게 되었다. 결국 로미오는 그 마을에서 추방 당하게 되어 줄리엣과 고통스럽고 슬픈 작별인사를 하고 떠나게 된다. 로미오의 사랑을 모르는 캐플릿가는 딸을 팰리스 백작과 결혼시키려 하지만 줄리엣은 신부님의 지혜로 40시간 후면 깨어나는 약을 먹는다. 줄리엣이 죽은 줄만 안 로미오는 무덤을 찾아가 독약을 먹게된다. 신부님이 보낸 사람을 로미오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깨어난 줄리엣은 죽은 로미오를 보고 영원한 죽음을 택했다. 모든 사실을 알게된 두 가문은 너무 늦었지만 화해를 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했다. 왜 로미와 줄리엣은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 아무리 원수지간이지만 요즘 TV 드라마처럼 부모님을 설득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이 이루어 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로미오의 성격은 섬세하고 의리를 지킬 줄 알고 줄리엣은 의지가 강한것 같다.

만약에 로렌스 신부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두사람은 그 마을을 떠나서 행복한 삶을 살거나 양쪽 집안의 허락을 받고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다. 비극으로 이어지다 마지막에 희극으로 반전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가문은 아들 딸을 잃고 뒤늦은 후회와 화해로 끝을 내지만 남는게 없는것 같다. 좀 더 두사람이 슬기롭게 대처하고 행동했다면 죽음으로 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로미오가 좀 더 신중했으면 줄리엣이 깨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줄리엣이 만투아까지 갈 시간만 있었더라

도 신부님의 무리한 계획은 없었을텐데 아쉬움때문에 책을 읽는 내내 답답하고 안타까웠다.

옛날에는 가문을 중요시 해서 이런 비극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랑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란 이름은 우리들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잡고 기억될 것이다. 다시 태어나 꼭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었으면 한다. 내가 좀 더 커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 어떤 감정일까? 꼭 다시 읽어봐야겠다.

'멘토'를 읽고서…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오 윤 아

나는 불과 몇 개월 전만해도 "멘토"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네티즌들에 의해 메니페스토를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 서점이나 매스컴에서 워낙 봇물처럼 쏟아져 나와 찾아봤더니 "현명하고 성실한 조언자"자를 뜻한다 했다. 조언자...궁금은 했지만 딱딱하고 지루한 책일거라는 편견을 갖고 몇 번을 망설였는데 엄마께서 어렵지 않고 재밌다고 권해주셨다.

나의 의구심과는 달리 첫 장을 읽었을 때 벌써 줄거리가 눈에 확 들어왔다. 간결해서도 좋았다.

자신의 생활에서 진정한 삶의 목표와 길을 알고 싶어하는 젊은 사업가 존의 고민은 나의 고민이기도 했다. 하루하루 열심히 잘 지내고 있는데, 가슴 한 구석을 누르고 있는 허전함은 유명한 강의나, 지혜가 담겼다는 책이나 훌륭한 선배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존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어느날 신문에서 "1분멘토"라는 기사를 읽고 흥미를 가지고 소피아 선생님과 상담한 후 1분멘토 강의를 듣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그리하여 강의 듣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즐거워 진다는 내용이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생활에 대해 내내 의구심을 던졌다. 분명한 목표도 없이 그저 "열심히"라는 것에만 매달리지 않았나? 구체적 계획없이 "분주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나? 목표나 탐구에 충분히 고민했었나? 벽에 부딪하면 1분이상 해결을 위해 노력했었나? 나는 지금껏 나에게 1분만이라도 나를 칭찬해 온 적이 있었나?

그간 읽은 수많은 책에도 좋은 글들은 많았지만 스펜서 존슨의 멘토처럼 구체적으로 되돌아보질 못했다. 즉 나의 생활의 삶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스스로 자신을 가르치도록 가르친다."는 말이 맘에 쏙 들었다. 바로 1분멘토는 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격려, 칭찬하고 스스로 생활을 점검하면서 스스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아주 짧은 시간을 나의 내면에 투자해 보라는 것이다.

목표를 세워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성취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가르치고, 누가? '내'가 나 자신에게 그것이 매일 매 시간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투자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껏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말했던 '자기 주도적 학습'과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훨씬 구체적이다.

물론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약간의 방법은 다르지만 내주변에서는 나를 위하는 멘토가 참으로 많이 계셨다는 것도 새삼 깨달아 감사한 일이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미디어 속의 많은 인물들과 주변의 모든 것들...

가깝다고 늘 있다고 등한시 했던것들에 참으로 미안할 따름이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얻는 것이다"라는 책 속의 말처럼 친구들도 이 책을 보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했으면 한다.

나는 이 시대가 원하는 멘토가 되고자 "스스로 자신을 가르치고"싶어 설레인다. 꼭 실천할 것이다.

나무가 준 깨달음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조 혜 미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산과 물이 많을 수 있었던 것은 나무라는 아주 중요 자원이 있어서 일 것이다. 내가 생각한 나무란 산을 매 계절마다 다른 옷들로 바꿔 입혀 줄 뿐만 아니라 식물들과 동물들에게는 열매라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공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나무는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무들은 이러한 이로운 점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들 한다는 것을 책으로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사람이 태어서 죽을 때까지의 삶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어린 나무는 처음에 우리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땅 속에 묻어서 생명이 된다. 그리고 어른 나무의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들으며 처음으로 꽃이 피고 그 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책에서 읽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 했다. 그것은 우리 사람으로 하자면 부모가 아이를 위해 이런 저런 얘기도 해 주며 혼낼 건 혼을 내고 그것으로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과 유사해서 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 했었다. 그리고 매 계절마다 쑥쑥 커가는 어린 나무는 첫 열매를 열리기 위해 모든 정신을 쏟고 세차게 부는 비바람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마침내 열매가 나온다. 나무의 이러한 과정은 내가 어느 목표를 정해 두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연상케 만들었다. 시험으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 포기를 하려고 생각이 날 때마다 어떤 보호막이나 장치 없이 홀로 비와 바람을 맞고서 우뚝 늘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나무를 생각하니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어린 나무라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본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했을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 응원해 주고 희생해 주는 사람은 없다고 가끔 느꼈었다. 그런데 나무는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고 스스로 자라나면서 다른 나무를 위해 걱정과 조언들을 아끼지 않으며,

희생을 하며 한 해 아니, 몇 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 왔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점점 삶이 각박해지더니 이제 인심까지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 물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요즘 시대와 달리 각박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기심과 편안함을 누리려는 마음으로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이런 비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옛 모습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가 느꼈던 나무의 노력과 헌신을 본받아서 현대 사회인 만큼 발전된 것에 맞게 이김 없고,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나부터라도 나무같이 남은 삶을 편안한 그늘처럼 느긋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메밀 꽃 필 무렵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박 찬 희

메밀밭을 아름답게 표현한 부분과 중간중간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임을 암시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인상적인 소설이다.서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았을 동이와 허생원,성서방네 처녀의 운명이 기구하다고 생각한다.하지만 내가 만약 허생원이라면 성서방네 처녀가 하룻밤을 보내고 사라졌을 때 그대로 그리워하고만 살았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까지 찾아보았을 것 같다.그렇게 해도 만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한 번 맺은 인연을 다시 잇기 위해 노력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을 동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평생 살면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못보는 심정이 어떨까? 아마 말로 표현도 못할 정도로 보고싶었을 것이다.허생원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그 첫날밤 일로 생겼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생각하며 평생을 봉평에서 머무르고 있는것일지도 모른다.

또 이 소설안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성서방네 처녀도 허생원을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결말을 쓰지 않아 여운을 남긴다는 것이었다.보통 소설이라면 동이가 누구의 아들인지,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 재회를 하는지 등을 썼을텐데 결말을 쓰지 않고 열어두면서 독자들에게 상상을 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내 생각에는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같은 왼손잡이라는 것과 동이의 엄마가 성서방네 처녀가 떠났다는 제천에 있다는 것을 볼 때,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또 허생원의 젊은 시절과 똑같은 동이의 모습을 보고 나무라는 부분에서는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작년 문학 수업시간에 이 소설을 배웠을 때는 자세히 읽지 않아서 잘 몰랐었는데 이

번 기회를 통해 이 작품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딱딱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소설이었는데 이 작품은 그리 어렵지도,지루하지도 않아서 재미있었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추산초등학교 학부형
안 혜 정

이 책은 작년에 남편에게서 선물받은 것인데 표지 한장을 넘기면 남편이 써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세요'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를 지지해 주는 멋진 남편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 나의 꿈은 독서지도사와 심리치료사랍니다. 작년에는 독서지도사 1년 과정을 마쳤고 올해는 방송대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부끄럽더군요. 내 삶을 들여다본 것처럼…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나 역시도 505호 아줌마 대열에 끼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나면 한집으로 우르르 몰려가 수다를 떨다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시간되면 유치원에 전화해서 "○○네 집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했고 아이들이 돌아오면 놀이터에 나가 줄줄이 앉아서 저녁때가 되어 돌아오는 남편들을 보며 "저 사람은 ○○네 아빤데 돈을 잘 번다더라", "저 사람은 ○○네 아빤데 성격이 너무 좋대"하며 한심하기 짝이 없는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내 남편과 다른집 남편들을 비교하며서 바가지를 긁었고 아이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며 '내 인생은 왜 이러는거야'라며 한탄하고 내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면서 나의 생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내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가족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쏟았던 관심을 나에게 쏟기 시작하면서부터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는 일도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는 일도 줄어들게 되더라구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는 대신 내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충만해졌습니다. 서른여섯이라는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이기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는 생각을 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보고 달리기로 했습니다. 십년 후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많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방송대학 특성상 밤에 공부를 하러 가야 하기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꺼야!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아. 애들 신경쓰지 말고 공부하러 다녀"

남편의 말을 듣고 자신감이 생긴 나는 이기적인 아내 이기적인 엄마가 되기로 했답니다. 여전히 공부하러 가는 날이면 아이들이 붙잡지만 뿌리치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하기에…

남편의 말처럼 내 인생은 내것이기에 나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나에게 600만원이라는 돈만 남게 된다면 작가의 친구처럼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고 남편의 온퇴를 앉아서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이들이 나의 품을 떠나려 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고생한걸 책으로 엮으면 열권도 넘어"라는 말을 하지만 막상 쓰려하면 아무것도 쓸게 없는 허무한 삶 보다는 내가 주인공인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계발해 나갈 것입니다. 작가의 언니인 김미원씨의 사연을 읽으면서 그분이 경이롭기까지 하더군요. 성공적인 삶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이루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까요? 상상이 되질 않네요.

가끔 주위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 역시도 우울증을 겪었기에 그 삶이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해 주고 아껴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전업맘들이 이 책을 한번쯤은 읽어보고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어 아름답고 활기찬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를 항상 지지해주고 잘 할 수 있을거라는 말을 해주는 남편에게 고맙고 잘 챙겨주지 못하지만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고 말해주는 나의 사랑하는 딸 희진이와 아들 승민이에게 엄마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아름다운 가족

추산초등학교 학부형
이 진 숙

이 작품은 공지영 작가의 자전적 소설로 세 번을 이혼한 엄마가 성이 다른 세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진정한' 가족이야기다. 자전적인 성격을 띄는 만큼 작가에 대한 관심도 컸다.

인터넷 검색창에 '공지영'을 치면, '공지영의 첫번째 남편, 공지영의 두번째 남편, 공지영의 세번째 남편'이라는 검색어가 딸려 올 만큼 흥미있는 화제거리의 주인공이다. 작가는 자신을 '대한민국 이혼한 여자의 대표선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나는 그녀에게 '문제있는 여자'라는 선입견도 있었고 미모의 글 잘 쓰는 작가로서 부러워하기도 했다. 다른 작품 속에서도 내비치듯이 밥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 레이스달린 원피스를 입고 롤케익을 간식으로 먹을 만큼 윤택한 가정에서 곱게 자란 그녀의 삶이 또한 부러웠다. 그런 그녀가 세번이나 이혼하는 가혹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예쁘지도 부유하지도 않고 별다른 재주도 없는 나는 '역시 신은 공평하구나!'라고 흡족한 미소를 띄우기도 했지만 이 작품을 읽은 후 '엄마인 그녀'가 나에게 많은 용기가 되었다.

직장생활과 세아이의 엄마, 병원출입이 잦은 시어머니의 봉양이 나를 초라한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은 나를 더욱 힘겹게 만들었지만 아름다운 그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이 나 자신 또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당당히 성이 다른 아이들을 키워내고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 아이만은 세상과 타협하기보다 자신을 찾으며 살아가겠끔 이끌어주는 엄마, 아이의 잘잘못을 떠나 우선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고 보듬어 줄줄 아는 참

다운 엄마였다.

그녀가 세상이 보기엔 뒤틀린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이 다른 아이들과 부비고 살아가는 일이 힘겨웠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엄마이기에 행복했듯이 나 또한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해 주었다. 그 이유는 나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또, 내 가족으로 인하여 그저 팍팍한 삶으로만 느끼며 살아온 나를 "내가 앉은 가시방석이 꽃방석일 수 있다."라는 말을 가슴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위녕은 재혼가정에서 자랐다. 아빠는 언제나 정리정돈과 계획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윤리교사인 새엄마는 역시 윤리교사답게 규범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새엄마는 원리원칙대로 가르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었고, 좋은 엄마라면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했다. 아빠는 새엄마와 의붓딸사이의 시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려주는 사람이었다.

엄마의 자유로운 성향을 닮은 위녕은 반항적인 사춘기 소녀로 자랐고 열여덟에 엄마의 집으로 베이스캠프를 옮겼다.

그동안의 구멍 뚫린 가슴은 엄마의 존재감을 느낌으로써 서서히 채워져 갔다.

엄마는 친구처럼 친근하고 솔직한 성격을 가졌고 판단이전에 딸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주는 모습은 좋은 치료약이 되었다. 위녕은 서서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자신감을 얻어가게 된다.

어느 날 위녕은 부모님께 그동안의 억울함을 따지러 가기로 결심한다.

위녕은 폭풍우같이 휘몰아치는 감정을 껴안고 어느새 아버지의 집 앞에 서게되고, 아버지는 오랜만에 찾아온 딸을 차가운 태도로 맞는다. 15분의 시간이 있으니 잠깐 얘기 하자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생활이 중요했지 딸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묵은 감정을 토해내게 된다. 아버지는 소리없이 흐느끼며, 딸도 울었다. 위녕은 갑자기 나타난 새엄마 분노에 "그건 위녕의 말이 맞아요"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순간 7년간의 묵은 상처가 씻겨짐을 느꼈다. 동시에 새엄마의 얼굴에 깊은 상처가 스쳐감을 보고 이상하게도 새엄마에게서도 상처받은 자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새엄마에게서 받은 상처도 아물어감을 느꼈다.

7년간의 곪은 상처가 15분만에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비록 위녕에게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지만 그것이 아버지와 새어머니 나름대로의 방식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가족이란 사랑 그 자체다. 하지만 어둠이 있어 별이 빛나듯이 가족 또한 사랑감정 뒤에는 가장 큰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깃들어 있는 곳임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사랑에 대한 기대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억울함이란 감정이 생겨난 것이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란 가난했던 시절에 책임감과 풍요로움과 교육에 있었다면 현대가족에서는 "공감하며 이해하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모범적인 삶을 사는 아버지와 새엄마가 위녕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었으며, 자유롭고 정리안되며 세 번이나 이혼한 (비도덕적) 엄마가 위녕에게 따뜻함과 치유의 존재가 되는 것은 위녕엄마는 가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자식의 허물을 알면서도 우선 자식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인정해 줌으로써 마음의 힘이 되어주는 엄마였다. 부모의 체면 때문에 아이의 마음보다는 잘못된 행동만 탓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 스스로도 엄마로서 부끄러울 따름이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정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자의 명언이라도 땡볕아래서 듣는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처럼 따분한 일일 것이다.

부모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위녕엄마가 거친 삶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사랑받지 못한 위녕엄마였다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성이 다른 세 아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또 다른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사랑은 대물림된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행복하고 용기있으며, 좌절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증명해 가고 있다. 세 번 이혼한 위녕엄마가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족"은 천금보다 더한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2008 제22회 반월문화제

심사평

백일장 · 사생 · 서예 · 사진촬영대회 · 좋은책읽기

백일장 심사평

메마른 대지에 새 생명을 불어 넣어 생기를 돋구는 새 봄이 시작하는 계절에 종합체육관과 공설 운동장에 모여든 많은 어린이들과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리에 전개된 백일장에서 일반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저마다의 실력을 겨루어 제출된 수준 높은 작품에서 회를 거듭 할수록 참여도와 작품의 수준이 확연히 높아졌음을 보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초등 어린이들의 운문에서 어린이다운 표현이 인상적이었다.

「바람이 좋아요.
꽃들이 좋다고 춤을 추니까」

「봄 꽃들이 아주 좋아요.
내 얼굴을 환하게 비쳐 웃게 하니까」

에서 티 없이 맑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과 고등부 운문에서

「아름다운
봄
이
되어……」

에서 보듯이 시의 연이나 행의 배치를 개성 있게 하는 능력과 압운법을 구사하는 능력이 돋보였으니 매 연에 각 운을 규칙적으로 배치한 점은 높이 평가하게 된다.

일반부의 참여도가 높은 것이 이번 백일장의 특색으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수준도 대단히 높아서 심사하는 마음이 매우 기뻤다.

「향리에 있는 사찰 대화의 시간에 참여하여 차 한 잔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에

처음 나아가 새로 오신 주지 스님의 차 대접을 받는 시간이었다. 모퉁이를 돌아 정원으로 나오시는 스님의 모습을 보고 온몸이 무너지는 전율과 눈이 흐려지는 충동을 느끼며 자세히 바라보니 대학 신입생 시절 복학한 선배였던 사람이다. 친하여 연인으로까지 발전했던 사람이다.

갑자기 배낭여행을 떠나고 소식이 끊긴 사람이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이다. 무슨 말도 할 수 없었다.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더구나 아들이 옆에 서 있는 나로서는 더욱 그러했다.

인연의 무상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냥 돌아섰다.

돌아선 스님은 내 아들의 검은 눈썹이 자기를 닮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까?」

체험 실화이지만 구성이나 표현력에 있어 흠잡을 데가 없었다. 꾸준히 읽으시고 쓰시어 매진하시기 바란다.

부득이 심사 과정에서 순위가 밀린 작품도 손색없는 작품이었음을 밝히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

심사위원장 양 윤 택
심사위원 이석구, 이중희, 이원용, 양근희

사생대회 심사평

신록의 5월, 행사가 있는 날의 날씨가 걱정되었다. 비나오면 어쩌나, 흐린 날씨면 어쩌나-

그러나 오전의 안개가 걷히고 화창한 봄날이 되었다.

사생은 빛을 바탕으로 한다. 야외에서 그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생은 빛이 생명이다. 좋은 날씨를 택한 것은 주최 측의 행운이다.

올해로 스물 두 번째 맞는 반월문화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그만큼 볼거리 그릴거리가 많아진 행사가 되었다.

사생대회가 표현종목에 있어서 다양함(상상화, 수채화/사생, 정물, 한국화, 판화, 소묘, 구성, 포스터 등)은 과연 미술실기대회라고 이름 하여도 무방하리라.

대회 참가 인원은 작년과 비슷하였고 작품수준은 평년작 수준이었다.

예년에는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많이 참가하였는데 그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혹시 입상작품의 수를 너무 적게 정하여서 참가의욕을 떨어뜨리지나 않았는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참가학생들의 그리기 솜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나 좀 더 그리기의 기초를 다져나가는 단계의 결과물이었으면 좋았겠다. 학교에서, 가정에서의 충분한 지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한국화는 사생화이어야 하나 실내에서 그리는 특유의 관념적인 그림이 많았다. 실경산수를 그리는 지도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현실에 있어서 세태의 반영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주최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참가율이 저조한 중, 고등부 학생들의 작품은 사전에 공모하여 출품작품을 확보하는 노력 등---

일반부의 참가자가 십 여 명에 달해 대회 이래 제일 많은 참가자가 나왔다. 작품은 열심히 하였지만 미완성의 작품이 대부분이었다. 그림그리기가 조금 늦은 출발이라 하더라도 기왕이면 기초를 탄탄히 다져나가는 작품이기를 바란다.

금년에는 대상작품으로 초등부 고학년의 작품 중 판화를 선정하였다. 판화이면서도 구도도 좋았고 또한 조각도를 다양하게 잘 사용하여 양감, 질감 등 판화의 효과를 잘 살린 작품이어서 심사위원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았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발전되는 사생대회이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장 황행일
심사위원 홍명진, 김계영

서예대회 심사평

스물 두 번의 행사 중 처음으로 비가 내렸다.

일기 관계로 수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 모여 행사를 치룰 수밖에 없었다.

펼쳐놓은 화선지를 밟을 듯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작품을 내어놓기에는 여간 잡다한 신경이 쓰였음직하다.

〈먼저초등부〉: 한글 판본체를 씀에 붓을 납작하게 방필로 만들어 붓을 돌려가며 쓰는 것을 보았다. 바람직한 필법이 아니다.

몇몇이 한문부에 훌륭한 자질이 보인다. 더욱 노력을 당부한다.

〈중고등부〉: 어린 시절 부터 착실히 수련한 소질과 노력이 어우러진 작품을 볼 수 있었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일부 체계적이 지 못한 학습여건과 방법을 엿볼 수 있는 몇몇 사람도 보인다.

〈대학 일반부〉: 지역의 다양한 문화교실과 교양교실 덕분에 일반부 참여가 많이 늘었다. 올바른 학습법과 체계적인 교습법 덕분에 수준작이 많이 엿보인다. 그러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행초를 씀에 해서의 정형적인 틀에 집어넣어 쓴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뛰어가는 모습을 그리거나 사진을 찍는다면 그 모습이 다양할 것이다. 발을 벌린 사람에 팔을 든 사람이며 상상해 보라 그런데 하나같이 차렷 자세로 서 있다면 뛰어가는 모습을 그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있다 점과 획의 연결선에 미백으로 처리되어야 할 곳과 무게가 실려야할 곳을 분명하게 구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 획과 허 획을 구분해야 한다는 말이다.

일반부에는 연로하신 분이 많이 계시고 젊은 사람이 적은 것이 앞날에 우리 지역의 서예가 어떻게 변모해갈지 조금은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집행부의 참가자와 입상자에 대한 예우가 적당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일이다.

그어진 선 안에 들어 즐거운 분들과 선 밖에서 섭섭한 분들께 우리는 한배를 탄 사람이란 생각으로 축하와 위로를 드리며 함께 노력과 면려를 당부하는 바이다.

심사위원장 최영진
심사위원 이병찬, 박재교

사진촬영대회 심사평

2008년도 반월문화제의 사진 부문은 양과 질 등 모든 부분에서 작년도보다 못한 모습을 보였다. 출품수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내용과 수준면에서도 많이 뒤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줘 심사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행사 당일 오전에 비가 내리는 바람에 사진을 찍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비가 온다고 해서 사진을 전혀 찍을 수 없는 것은 아니기에 그 안타까움은 더 진하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작품이 없었다는 점이 그것을 증명한다. 모든 부문을 통털어 "아, 정말 잘 찍었다! 사진 좋네!" 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사진이 올해 없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움을 넘어 슬프기까지 하다. 해마다 한두 점은 그런 사진들이 있었기에 그 허전함이 더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올해의 심사평은 간단히 줄이는 대신 좋은 사진을 찍은

요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심사평을 대신하고자 한다.

초등부는 아직도 어른들의 손길이 가미된 사진, 또는 어른들의 작품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많이 접수되는 경향이 여전하였다. 과연 언제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질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아직은 순수하여야 하는 동심의 세계다. 그 무대에서 무슨 대회에 나가 무슨 상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진데 상에 눈먼 어른들의 그릇된 욕심이 깨끗하고 순수한 동심을 더럽히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 금할 수 없다.

어쨌거나 초등부 사진은 꾸미지 않아서 좋다. 보는 그대로 찍는 사진이기에 순수함이 배어 난다. 아직은 카메라도, 실력도 미흡하여 훌륭한 사진을 기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 열정과 관심에 박수를 보낸다.

그 외 부문도 작황은 초등부와 마찬가지여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작년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였음은 올 반월문화제에서 사진 부문이 갖는 가장 큰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배경처리가 미숙하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내용들이 화면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진이 어지럽고, 복잡하며 심지어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사진들이 많았다. 비가 온 탓인지 실내 사진이 유난히 많았던 점은 올해 출품된 사진들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날씨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진이란 장르가 날씨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사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사진에 대한 관심과 실력을 쌓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나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일반부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늘 부족한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지는 일반부는 정작 사진의 진수를 보여줘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거의 철저할 만큼의 무관심 속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분명 우수한 실력과 솜씨를 갖추고 있는 많은 사진 동호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극소수의 참여 인원으로 치러진다는 것은 정녕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심사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사진 찍는 간단한 요령을 기술하고자 한다.

좋은 사진을 얻거나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진을 단순하게 그리고 크게 찍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단순하게 찍기와 크게 찍기'만 제대로 하면 분명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다. 먼저 '단순하게 찍기'는 주제를 단순화하여 화면에 여러 가지 내용을 넣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 사진은 보기에도 복잡하고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무엇을 찍고자 한 것인지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사진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내용을 간소화 하고 단순화 한다면 훨씬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크게 찍기'는 소위 말하는 '클로즈 업' 사진을 말한다. 단순화한 주제를 가능하면 크게 찍어야 힘이 생기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작게 찍은 것과 크게 찍은 것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인물 사진도 크게 찍어야 얼굴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나듯이 풍경 사진도 주제를 크게 부각시켜야만 좋은 사진이 되는 것이다. 필요하면 어느 부분을 과감하게 자를 수도 있고, 특정 부분만을 접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TV 영상이다. 드라마에서도 주인공의 얼굴을 크게 클로즈 업 하여 잘 보여 주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이다. 한 화면 안에 주제를 크게 찍어 돋보이게 부각시키고, 불필요한 내용들을 제거하여 단순화 시킨다면 틀림없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이 두 가지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누구나 좋은 사진작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도 2009년 반월문화제엔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설령 비가 온다고 해도 올해 같은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를 계기로 사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모든 사진인 들에게 바램하면서 심사평을 마친다.

심사위원장 이규춘
심사위원 강돈희

좋은책읽기 독후감 심사평

독후감 쓰기는 백일장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각자의 여유로움과 자유로움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어린이다운 표현이 귀엽고 대견스러웠는데 작품을 읽으면서 내용을 열거하는 것처럼 써나가다가 끝에 가서 자기의 생각을 써보는 것이 많았고 작품 속에 빠져 드는 식으로 제법 감상문적인 표현을 하는 글을 볼 때 대견함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된 것처럼 빠져드는 글도 읽었습니다.

중 · 고등학교 학생의 글은 훨씬 내용 파악이나 표현에 있어서 세련되고 감상문답게 구성하여 짜임새 있게 써서 보는 사람도 하나의 작품 속에 빠져드는 듯한 생각이 들게 하는 글이 많습니다.

작품속의 사건이나 인물에 대하여 평가도 하고 자기 자신과 비교도 하면서 훨씬 넓은 상상, 관찰 등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간접체험에서 터득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을 볼 때에 한 단계 성숙해지는 의식세계를 그려내는 것을 볼 때에 훨씬 어른스런 느낌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독서량이 많은 사람이 마음의 양식이 풍부하여 능력이 있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 독서를 많이 하는 습관을 길러 주시기 당부해 봅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좋은 책 읽기」는 각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지도에 힘입어 금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참여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 봅니다.

중 ·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여했으나 소수학교에 그친 점이 아쉬웠습니다. 일반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 봅니다.

심사위원 양윤택, 이석구

2008 제22회 반월문화제

입상자 명단

백일장 입상자 명단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
운문	초등부	장원	박가영	태봉초등학교	4학년
		차상	이찬영	중리초등학교	5학년
		차하	이민우	송우초등학교	4학년
		차하	여혜지	왕방초등학교	6학년
		장려	황지영	노곡초등학교	6학년
		장려	한승연	선단초등학교	5학년
		장려	한진솔	송우초등학교	6학년
		장려	박현지	영북초등학교	4학년
		장려	이지연	포천초등학교	5학년
		장려	최희선	영북초등학교	5학년
		입선	황지은	축석초등학교	6학년
		입선	손선영	일동초등학교	4학년
		입선	김수현	보장초등학교	6학년
		입선	임유진	보장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승현	선단초등학교	6학년
		입선	한시원	송우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진하	송우초등학교	3학년
		입선	박나은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나은빈	포천초등학교	4학년
		입선	정영은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은홍	영북초등학교	6학년
	중등부	장원	최나현	영중중학교	3학년
		차상	양민지	동남중학교	2학년
		차하	김도희	동남중학교	3학년
		차하	정다솜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차하	심재겸	동남중학교	3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
운문	중등부	장려	백준호	갈월중학교	1학년
		장려	나종빈	포천중학교	1학년
		장려	이다인	동남중학교	2학년
		장려	이지향	갈월중학교	3학년
		입선	김다혜	동남중학교	2학년
		입선	최예인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입선	윤지현	동남중학교	3학년
		입선	강용성	동남중학교	1학년
		입선	한지현	송우중학교	1학년
		입선	김영진	포천중학교	2학년
		입선	이하늘	대경중학교	2학년
		입선	황정은	동남중학교	2학년
		입선	정민지	대경중학교	2학년
		입선	박지현	이동중학교	3학년
	고등부	장원	차재민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상	김용민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상	김나영	송우고등학교	1학년
		차하	추효정	동남고등학교	1학년
		장려	한수정	동남고등학교	2학년
		장려	노은혜	송우고등학교	1학년
		장려	조혜미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입선	권혜주	동남고등학교	1학년
		입선	김예지	동남고등학교	2학년
		입선	문주희	동남고등학교	2학년
		입선	이정아	동남고등학교	1학년
		장원	정현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차상	조미숙	양주시 덕정동	
		차하	임대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장려	백종만	신북면 기지리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
운문	일반부	입선	정명숙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문	초등부	장원	윤진아	왕방초등학교	4학년
		차상	윤가영	왕방초등학교	6학년
		차상	최나현	관인초등학교	6학년
		차하	남지유	왕방초등학교	6학년
		차하	김정우	추산초등학교	1학년
		차하	조수빈	일동초등학교	4학년
		장려	서채림	영북초등학교	5학년
		장려	김은지	선단초등학교	3학년
		장려	김병준	청성초등학교	6학년
		장려	정태경	포천초등학교	5학년
		장려	이은채	송우초등학교	3학년
		장려	이은주	영중초등학교	4학년
		입선	정소연	선단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송희	포천초등학교	5학년
		입선	이윤아	가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유혜민	이동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혜정	삼정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지연	포천초등학교	5학년
		입선	조홍진	추산초등학교	5학년
		입선	최정아	왕방초등학교	6학년
	중등부	장원	이윤주	내촌중학교	3학년
		차상	박혜지	동남중학교	1학년
		차하	이보혜	내촌중학교	2학년
		차하	윤혜연	대경중학교	1학년
		장려	이유리	내촌중학교	2학년
		장려	유혜정	이동중학교	1학년
		장려	배윤선	동남중학교	3학년
		장려	김예인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
산문	중등부	장려	오현진	영중중학교	3학년
		입선	서연주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입선	임소라	동남중학교	3학년
		입선	김지윤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입선	손지수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입선	김혜림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입선	김가희	내촌중학교	1학년
		입선	최윤주	내촌중학교	1학년
		입선	정태원	포천중학교	1학년
		입선	박은혜	이동중학교	1학년
	고등부	장원	김옥봉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상	김동희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하	김하나	동남고등학교	1학년
		차하	이하림	동남고등학교	3학년
		장려	권려진	포천고등학교	1학년
		장려	이해영	송우고등학교	2학년
		입선	유희정	송우고등학교	1학년
		입선	이민경	송우고등학교	1학년
	일반부	장원	김영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차상	정혜진	포천시 내촌면 내리	
		차하	이태영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차하	김미현	포천시 신읍동	
		장려	유동계	포천시 군내면 명산리	
		장려	박진순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입선	서선례	포천시 관인면 중1리	

사생대회 입상자 명단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상상화	유치부	최우수	유진수	동심유치원	
		우수	이현진	아람유치원	
		우수	조우주	포스트창조미술학원	
		특선	임정현	자연과동화어린이집	
		특선	최예지	원암어린이집	
		입선	조서연	공룡나라미술학원	
		입선	이채현	파란나라어린이집	
		입선	송윤주	세화유치원	
		입선	구은비	송우어린이집	
		입선	조현도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입선	최효진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입선	연주은	공룡나라미술학원	
		입선	신용현	송우어린이집	
		입선	나아연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입선	최가은	자연과동화어린이집	
		입선	허강준	예뜰미술학원	
		입선	최은서	미래예능어린이집	
		입선	현진환	쟈니유치원	
		입선	윤규민	신북병설유치원	
		입선	고화연	파란나라어린이집	
		입선	김혜림	파란나라어린이집	
		입선	양민주	예뜰미술학원	
		입선	김하연	예뜰미술학원	
		입선	최민정	파란나라어린이집	
		입선	최인효	현대미술학원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상상화	유치부	입선	최은빈	현대미술학원	
	초등부 저학년	최우수	이주휘	송우초등학교	2학년
		우수	강승범	태봉초등학교	3학년
		우수	백다경	태봉초등학교	1학년
		우수	강은빈	송우초등학교	3학년
		특선	최민지	추산초등학교	2학년
		특선	김예찬	신봉초등학교	1학년
		특선	백나임	태봉초등학교	3학년
		특선	홍정민	포천초등학교	2학년
		특선	김현빈	왕방초등학교	1학년
		특선	김민석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배환희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민혁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임문섭	신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유빈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윤대협	선단초등학교	1학년
		입선	한유종	일동초등학교	1학년
		입선	백예진	중리초등학교	1학년
		입선	권서현	왕방초등학교	1학년
		입선	고유정	관인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은채	일동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선용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차정훈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민지홍	왕방초등학교	1학년
		입선	류성주	이동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나경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윤서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선재	왕방초등학교	1학년
		입선	윤준영	왕방초등학교	1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상상화	초등부 저학년	입선	김대희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박한희	신북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륜아	왕방초등학교	1학년
		입선	한혜미	청성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주영	유암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윤서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성준	송우초등학교	1학년
		입선	최가은	유암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경서	영북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상윤	추산초등학교	1학년
		입선	구승모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어진	영중초등학교	1학년
		입선	박채린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황다은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이상일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민교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송희성	신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경빈	추산초등학교	1학년
		입선	안지원	태봉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성진	포천초등학교	1학년
		입선	박진솔	송우초등학교	2학년
		입선	박준호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홍예지	선단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예진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혜림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류다정	왕방초등학교	2학년
		입선	문서영	송우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인선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최윤제	포천초등학교	2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상상화	초등부 저학년	입선	차정제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박성민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배묘희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맹서영	청성초등학교	2학년
		입선	조진선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최수민	일동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형준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미르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신예인	선단초등학교	2학년
		입선	허은수	이동초등학교	2학년
		입선	황초희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수인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수빈	영북초등학교	2학년
		입선	정민영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양영서	내촌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유진	영북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경수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혜선	포천초등학교	2학년
		입선	이윤지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함석원	추산초등학교	3학년
		입선	전진범	왕방초등학교	3학년
		입선	우영영	송우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지원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임혁순	추산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태형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강별	영중초등학교	3학년
		입선	최윤선	관인초등학교	3학년
		입선	장성명	신북초등학교	3학년
		입선	박채운	태봉초등학교	3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상상화	초등부 저학년	입선	김수정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최수빈	왕방초등학교	3학년
		입선	배상준	왕방초등학교	3학년
		입선	조민지	왕방초등학교	3학년
		입선	최해나	일동초등학교	3학년
		입선	류장호	선단초등학교	3학년
		입선	김예희	신봉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광연	추산초등학교	3학년
		입선	박범철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박승준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두희	가산초등학교	3학년
		입선	조서연	일동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예린	태봉초등학교	3학년
		입선	양승규	송우초등학교	3학년
		입선	정민성	왕방초등학교	3학년
		입선	안도희	포천초등학교	3학년
		입선	임수진	추산초등학교	3학년
		입선	전진영	포천초등학교	3학년
사생	초등부 고학년	최우수	김경실	추산초등학교	5학년
		우수	박민지	포천초등학교	4학년
		우수	이채린	태봉초등학교	6학년
		특선	김나영	송우초등학교	4학년
		특선	이동규	태봉초등학교	4학년
		특선	정희아	추산초등학교	5학년
		입선	이강연	추산초등학교	5학년
		입선	이지혜	내촌초등학교	5학년
		입선	이승민	태봉초등학교	5학년
		입선	신세인	일동초등학교	5학년
		입선	차다영	추산초등학교	5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사생	초등부 고학년	입선	양혜림	포천초등학교	5학년
		입선	남민우	추산초등학교	4학년
		입선	곽수지	태봉초등학교	4학년
		입선	심규의	일동초등학교	4학년
		입선	한호진	포천초등학교	4학년
		입선	윤현식	태봉초등학교	4학년
		입선	신채연	송우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수진	송우초등학교	4학년
		입선	노은지	노곡초등학교	4학년
		입선	강민재	선단초등학교	4학년
		입선	주은총	송우초등학교	4학년
		입선	박현영	왕방초등학교	6학년
		입선	최보림	왕방초등학교	6학년
		입선	강경희	영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임다연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노경민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양유림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송다슬	일동초등학교	6학년
판화	초등부	대상	전희재	포천초등학교	6학년
		우수	이동기	태봉초등학교	6학년
		우수	최승우	포천초등학교	5학년
		특선	정찬	신북초등학교	5학년
		특선	황민혁	태봉초등학교	6학년
		입선	원지연	왕방초등학교	6학년
		입선	최동원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노을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현근	왕방초등학교	6학년
		입선	임채영	외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혜승	청성초등학교	5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판화	초등부	입선	아송카	유암초등학교	6학년
		입선	홍정호	왕방초등학교	5학년
		입선	채아정	왕방초등학교	4학년
한국화		우수	이원정	송우초등학교	6학년
		특선	최석용	가산초등학교	6학년
		특선	이찬희	가산초등학교	4학년
포스터		특선	홍예지	태봉초등학교	4학년
		입선	방은호	축석초등학교	6학년
	중등부	최우수	조해선	송우중학교	3학년
		우수	이지혜	갈월중학교	2학년
		우수	최석주	송우중학교	1학년
풍경화		특선	서하늘	영중중학교	3학년
		특선	황인휘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특선	조현정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특선	곽윤재	송우중학교	1학년
		입선	한은지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입선	정주라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입선	장선희	송우중학교	1학년
		입선	전보연	갈월중학교	3학년
		입선	홍은심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입선	정영은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입선	노은영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입선	양희아	갈월중학교	3학년
정물화		최우수	이영훈	대경중학교	3학년
		특선	함산하	송우중학교	1학년
소묘		우수	황수연	내촌중학교	3학년
		우수	신소영	영중중학교	2학년
		특선	김경은	갈월중학교	3학년
		특선	황지원	송우중학교	3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소묘	중등부	입선	이광	동남중학교	3학년
		입선	박준식	포천중학교	2학년
		입선	박우림	경북중학교	1학년
		입선	정경원	내촌중학교	3학년
		입선	윤이나	내촌중학교	2학년
		입선	이세오	송우중학교	3학년
판화		최우수	최미애	영중중학교	3학년
		우수	강창완	대경중학교	1학년
		특선	김수정	송우중학교	2학년
		특선	박세빈	갈월중학교	1학년
		입선	유현아	갈월중학교	1학년
		입선	조은비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한국화		특선	최정연	갈월중학교	1학년
		입선	박유진	이동중학교	3학년
		입선	이재형	송우중학교	1학년
		입선	채명현	이동중학교	2학년
		입선	박종찬	영중중학교	3학년
포스터		최우수	김선혜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우수	김은진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특선	이종범	영북중학교	1학년
		특선	정민기	포천중학교	1학년
		입선	조영수	포천중학교	1학년
		입선	원민지	경북중학교	1학년
		입선	이민경	영중중학교	3학년
사생	고등부	최우수	서혜림	송우고등학교	1학년
		우수	김은솔	동남고등학교	1학년
		우수	차정희	포천일고등학교	2학년
		특선	한진희	송우고등학교	2학년
		특선	김예림	포천고등학교	3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사생	고등부	입선	김혜원	송우고등학교	1학년
		입선	조민주	송우고등학교	1학년
		입선	양수연	동남고등학교	3학년
소묘		우수	홍지혜	포천고등학교	3학년
		특선	임형수	동남고등학교	2학년
		특선	김종현	동남고등학교	2학년
판화		특선	김초이	송우고등학교	1학년
		특선	김다솜	동남고등학교	1학년
포스터		특선	이엄지	포천일고등학교	1학년
사생	일반부	최우수	김옥분	포천시 신읍동	
		우수	허옥	포천시 송우리	
		특선	신산옥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특선	김현미	포천시 신읍동	
		입선	김영자	포천시 신읍동	
		입선	윤종칠	포천시 신읍동	
		입선	김애임	포천시 신읍동	
		입선	조웅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서예대회 입상자 명단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서예	초등부 한글	최우수	김영찬	송우초등학교	2학년
		우수	이영현	포천초등학교	6학년
		우수	강현아	포천초등학교	5학년
		특선	한나언	포천초등학교	4학년
		특선	양승직	포천초등학교	4학년
		특선	권지수	추산초등학교	5학년
		특선	이승희	태봉초등학교	6학년
		입선	우재훈	추산초등학교	1학년
		입선	김영서	영북초등학교	1학년
		입선	우미나	추산초등학교	3학년
		입선	이동현	태봉초등학교	2학년
		입선	허은경	태봉초등학교	3학년
		입선	정지희	추산초등학교	4학년
		입선	양기영	신봉초등학교	4학년
		입선	남경아	추산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영현	송우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은수	영중초등학교	4학년
		입선	김은주	영중초등학교	4학년
		입선	정다진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신윤호	왕방초등학교	4학년
		입선	이지현	왕방초등학교	4학년
	초등부 한문	최우수	박지윤	포천초등학교	4학년
		우수	허재경	태봉초등학교	6학년
		입선	신윤희	왕방초등학교	6학년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서예	초등부 한문	입선	권철우	포천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장우	추산초등학교	6학년
		입선	김태환	왕방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경영	왕방초등학교	5학년
		입선	정승우	태봉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혜서	영북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우석	영북초등학교	4학년
	중등부 한문	최우수	이병민	포천중학교	3학년
		우수	홍주연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특선	이수현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특선	김혜리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입선	허은지	송우중학교	1학년
		입선	이주현	대경중학교	3학년
		입선	최은비	영중중학교	2학년
	중등부 한글	입선	이해빈	영중중학교	1학년
		입선	이진	영중중학교	1학년
		특선	한도언	포천중학교	1학년
		특선	허은	포천중학교	3학년
	고등부 한문	최우수	이해인	포천고등학교	1학년
		우수	이병무	포천일고등학교	1학년
	고등부 한글	우수	이연우	송우고등학교	1학년
	일반부 한글	최우수	한현민	포천시 신읍동	
		우수	안숙자	포천시 신읍동	
		특선	정월순	포천시 군내면 용정3리	
		특선	한복수	포천시 소흘읍	
	일반부 한문	우수	유창렬	포천시 영북면 운천9리	
		우수	이옥주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특선	함영대	포천시 선단동	
		특선	박치훈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서예	일반부 한문	특선	김용순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특선	김수덕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특선	구수연	포천시 선단동	
		특선	유명렬	포천시 영북면 운천9리	
		입선	최장식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입선	권혁윤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입선	임병식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입선	김필연	포천시 신읍동	
		입선	박광일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입선	나정화	포천시 영북면 운천9리	
		입선	류태균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입선	이덕성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입선	김용주	포천시 화현면	
		입선	김진주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입선	구자영	포천시 선단동	
		입선	박광모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입선	유상호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사진촬영대회 입상자 명단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사진 촬영	초등부	최우수	김예지	외북초등학교	6학년
		우수	윤정현	외북초등학교	6학년
		우수	최진	도평초등학교	6학년
		특선	이상빈	가산초등학교	6학년
		특선	변제인	송우초등학교	5학년
		특선	이산	신북초등학교	4학년
		특선	김진혁	포천초등학교	5학년
		특선	송민석	영중초등학교	5학년
		입선	박현진	태봉초등학교	5학년
		입선	박경애	도평초등학교	6학년
		입선	김준호	추산초등학교	5학년
		입선	김형인	이동초등학교	6학년
		입선	정소현	청성초등학교	4학년
		입선	정다희	송우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성근	신북초등학교	6학년
		입선	한지희	외북초등학교	4학년
	중등부	최우수	이소희	동남중학교	3학년
		우수	강윤희	동남중학교	2학년
		우수	손지영	동남중학교	3학년
		특선	이진원	포천중학교	3학년
		특선	이광석	포천중학교	2학년
		특선	서호영	동남중학교	1학년
		입선	임다솜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입선	유병철	포천중학교	2학년
		입선	오동건	동남중학교	1학년

| 입상자명단 사진촬영부문 |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사진 촬영	중등부	입선	엄태웅	포천중학교	2학년
		입선	윤동현	포천중학교	2학년
		입선	이준혁	포천중학교	2학년
	고등부	우수	성미숙	동남고등학교	1학년
		특선	김정우	동남고등학교	1학년
		특선	김주연	동남고등학교	3학년
		입선	김도형	동남고등학교	3학년
		입선	최수정	동남고등학교	3학년
	일반부	우수	이병준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특선	박진원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입선	이혜정	포천시 소흘읍	
		입선	김영화	포천시 이동면 도평2리	

좋은책읽기 독후감 입상자 명단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좋은책 읽기 독후감	초등부	장원	서준	축석초등학교	2학년
		차상	조유빈	포천초등학교	3학년
		차하	노을	추산초등학교	2학년
		차하	정지혁	태봉초등학교	3학년
		차하	이은비	추산초등학교	5학년
		장려	정희아	추산초등학교	5학년
		장려	김수연	축석초등학교	6학년
		장려	이유영	관인초등학교	3학년
		장려	정의지	보장초등학교	2학년
		입선	양명식	지현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연빈	추산초등학교	2학년
		입선	김지현	영중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진희	선단초등학교	6학년
		입선	이진	창수초등학교	3학년
		입선	최혜민	창수초등학교	4학년
		입선	홍정표	보장초등학교	3학년
	중등부	장원	이강현	포천중학교	2학년
		차상	현우성	포천중학교	1학년
		차하	현지윤	포천여자중학교	1학년
		차하	오윤아	포천여자중학교	2학년
		장려	김연지	삼성중학교	2학년
		장려	양소현	내촌중학교	3학년
		장려	김민경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장려	김승현	포천중학교	2학년
		장려	이현규	포천중학교	1학년

| 입상자명단 좋은책읽기 독후감 부문 |

부문	부별	입상부문	성 명	학교(소속)명	학년-반
좋은책 읽기 독후감	중등부	입선	이윤주	내촌중학교	3학년
		입선	곽성이	삼성중학교	2학년
		입선	안연진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입선	김미래	포천여자중학교	3학년
		입선	박장희	포천중학교	3학년
	고등부	차상	조혜미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차하	박찬희	포천일고등학교	3학년
	일반부	차상	안혜정	추산초등학교 학부형	
		차하	이진숙	추산초등학교 학부형	

반 월 제 22 호(비매품)

2008년 7월 일 인쇄
2008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 : 포천문화원장 이 만 구
편집인 : 포천문화원 사무국
인쇄인 : 합동 인쇄 (031-534-4000)

포천문화원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33-45
전화 : 031) 532-5055 전송 : 031) 536-1020
E-mail : kgpc1986@yahoo.co.kr
홈페이지 : www.pcmh.or.kr

이 책은 포천시의 지원금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포천문화원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